

청초 강남지역의 유민결사*

— 驚隱詩社를 중심으로

朴英順**

<목 차>

1. 시작하며
2. 청초 강남지역의 유민결사
 - 2.1 유민의 정의
 - 2.2 청초 유민결사의 투쟁과 침체
 - 2.3 강남지역 유민결사의 특징
3. 경은시사의 활동과 특징
 - 3.1 경은시사의 구성과 성격
 - 3.2 학술활동과 경은시사의 침체
4. 경은시사의 시가창작
 - 4.1 은거와 절개: 도연명
 - 4.2 우국과 충정: 굴원, 정사초
 - 4.3 경은시사의 은거
5. 맺으며

1. 시작하며

청초의 명대 유민들은 자신의 생존과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결사'를 통해 힘을 응집하였다. 그들에게 있어 결사는 일종의 생존방식이다. 그들의 삶은 새 정권의 고압정책에 대한 저항과 위축, 운신의 폭의 한계로 인한 좌절과 은거,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362-B00011).

** 國民大 中國人文社會研究所 HK教授.

회유정책으로 인한 동화와 체제 내로의 유입, 동료 유민들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상실감 등으로 점철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시문(詩文) 창작으로 남겼다.

청초 유민들이 맞닥뜨린 개인의 암담한 운명과 정치의 변화에 대한 불안은 복명항청(復明抗淸)을 위한 투쟁으로, 벼슬에 대한 거부로, 피난을 위한 유랑으로, 단절을 위한 은거로, 도피를 위한 승려생활 등의 생존방식을 낳았고 또 그러한 심정을 저술과 창작 활동으로 풀어내었다. 이들은 특수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결사라는 생존의 방식을 택하여 유민이자 문인이자 지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다.

유민결사는 송원 교체기에 출현하여 명청 교체기에 이르러 활동과 영역, 숫자와 영향력 면에서 더 넓어진다. 특히 청초 유민결사는 강한 지역적 특색을 지닌다. 원나라 때 송대의 유민결사는 주로 남송의 고도 항주를 주축으로 하는 절강 일대가 중심이 되었고, 청대 유민결사 역시 명대의 고도 남경을 주축으로 하는 강소 일대가 중심이 되었다. 강남지역은 유민들에게 생존의 터전이자 투쟁의 공간이었고 정신적 도피처로도 작용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은 강남 지역의 정치적, 인문적 환경에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남기기도 했다.

유민결사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유민 자체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일부 유민결사를 문인사단과 문학우파, 문학 지리학 안에서 일부 다룬 저서와 논문들이 있긴 하지만 하나의 개별적인 유민결사에 대한 연구는 거의 보기 드물다. 이들에 대한 자료가 지방지, 역사서, 문집 등에 산견되어 있거나 문헌 확보의 미흡 등으로 인해 그러하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에 부족하나마 연사, 경은시사, 유민결사의 생존문제 등에 대한 연구도 보인다.¹⁾

1) 주요 관련 자료로 何宗美, 《明代文人結社研究與文學流派研究》, 人民出版社, 2015. 何宗美, 《明末清初文人結社研究》, 南開大學出版社, 2004. 周於飛, <驚隱詩社研究>, 浙江大學博士學位論文, 2012. 李偉煌, <中國文學地理學論著的數理統計與分析>, 廣州大學碩士學位論文, 2012. 吳增禮, <清初江南遺民生存境況研究>, 湖南大學博士學位論文, 2010. 周於飛, <驚隱詩社與山陰秘密反清團體交遊考>, 《紹興文理學院學報》, 2016, 第6期. 周於飛, <驚隱詩社成員認定過程考論>, 《廈門教育學院學報》, 2011, 第3期. 王文榮, <清初江南遺民結社研究: 以蘇松常鎮四府爲考察中心>, 《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 2011, 第4期 등이 있다.

유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치적, 역사적인 범주 안에서 많이 다루어 왔고, 상대적으로 문학적, 문화적인 범주 안에서 그들의 창작을 통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유민을 정치사회적인 큰 틀 안에서 바라보는 것은 지당하지만 정치적 행위와 활동만으로는 그들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느꼈을 심정을 이해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다. 비록 그들이 정치적 행위를 하고 투쟁에 가담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의 문화적 행위, 심리적 변화도 읽어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문화적 행위 즉 창작활동은 특수한 사회적 의미를 지닌 그들의 실제적 내면을 잘 들여다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테면, 그들은 결사를 통해 어떤 활동과 삶을 추구해왔고 어떠한 관련 작품을 남겼는가, 또 그런 작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그 속에서 담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등에 대한 질문이 생겨난다. 이 점이 유민결사를 이해할 때 유민들의 외부적 활동 외에도 작품 분석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처럼 유민결사를 대체로 정치적, 역사적 범주 안에서 연구해왔던 경향에서 벗어나 문학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점이 본고의 작은 의미일 것이다. 본고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자세히 검토·정리하고 그 토대 위에서 문인이자 유민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활동했던 청초 유민결사의 상황을 살펴보고자한다. 크게 청초 유민결사와 강남지역의 유민결사의 특징, 경은시사의 활동과 창작 두 범주로 전개한다.

경은시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전자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며, 또 강남지역은 유민들에게 투쟁·생존·도피 등의 의미를 부여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며, 청초 강남지역, 유민결사, 경은시사는 역사적, 인문학적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초 유민결사의 수는 저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본고에서는 명·청 문인결사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고 있는 하종미의 의견에 따라 청초 약50개 유민결사 가운데 강남지역에 분포해있는 약36개를 큰 범주로 하고, 그 가운데 강남지역의 대표적인(“吳中之冠”) 결사인 경은시사를 집중 분석 대상으로 한다.²⁾ 그리고 강남지역은 크게는 장강 중하류지역 즉 강소·안휘·상해·절

강·호남·강서 6성을 포함하지만, 본고에서는 주로 청초 약50개 유민결사가 분포해 있는 강소성과 절강성 일대를 중심으로 한다.

2. 청초 강남지역의 유민결사

2.1 유민의 정의

유민에 대한 정의는 의견이 다양하다. 명확한 구분은 아니지만 몇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정치적 입장에서 ‘벼슬’의 유무에 무게중심을 둔 해석이다. 사정광(謝正光)은 유민이란 명대에서 태어나 청에서 벼슬을 거부한 사람을 가리키며, “관리명부에 이름이 적혀 있든 아니든, 명나라에서 과거에 응시를 했든 않았든, 혹은 승려든 도사든 여자이든, 혹은 공훈으로나 학술로나 문예로나 가문으로나 그 중 한 가지 일이 기록되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정치적 원칙과 입장을 나타낸 사람이다.”³⁾라고 한다. 유민의 정치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대만학자 하관표(何冠彪)는 “조대가 바뀐 후 새 조정에서 벼슬하지 않은 사람”, “명이 망한 후 더 이상 녹과 벼슬을 구하지 않은 사람 또는 단 하루라도 청 조정에서 벼슬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유민으로 간주한다.”⁴⁾라고 하였다.

사정광, 하문표는 명대에서 태어나 청에서 벼슬을 거부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주로 “왕조가 바뀐” “벼슬하지 않음”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기본적으로 맞긴 하지만 다소 단정적인 정의이다. 청초에는

2) 何宗美, 《明末清初文人結社研究》, 308-317쪽 참고.

3) “凡著仕籍或未著仕籍, 曾應試或未及應試於明, 無論僧道閹閣或以事功或以學術, 或以文藝或以家世, 其有一事足以記而能直接或間接表現其政治原則與立場者.” 謝正光, 《明遺民傳記索引·敘例》, 上海古籍出版社, 1992. 吳增禮, <清初江南遺民生存境況研究>, 3쪽 재인용.

4) “易代後不仕新朝的人”, “明亡後不再干謁祿位的人, 且只要一日未仕清, 仍當作遺民看待.” 何冠彪, 《明末清初學術思想研究》, 學生書局, 1991, 123-124, 105쪽.

청정부의 억압과 통제 속에서 상당수의 유민들이 벼슬하기를 거부하였지만(하기도 어려웠지만) 건륭 이후 한족에 대한 완화정책으로 유민결사도 느슨해지고 정치적 활동도 적어지면서 유민결사의 분화가 드러났고 벼슬을 한 유민들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순치2년 과거제도를 회복하자 당시 “남쪽의 문인들이 일어나 인재를 뽑는 곳으로 달려가는”⁵⁾현상이 나타났고, 대명세(戴名世)는 “명나라가 망한 후 생원들은 은거하여 벼슬자리에 나가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초심을 바꾼 사람이 열에 일곱 여덟은 된다.”⁶⁾라고 하였다. 또한 강희제는 순치(順治)시기의 과거제도를 계승하고 팔고문을 회복하여 명나라 유민을 회유, 분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였으며, 결국 박학홍유과를 통해 청조에 벼슬한 유민들이 점차 생겨났다.⁷⁾ 실제로 주이존(朱彝尊), 시윤장(施閏章) 등과 같이 강희 17년 ‘박학홍유과’로 인해 출사한 경우가 적지 않다.⁸⁾ 결국 사정광, 하문표의 정의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유민에 속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들은 청 조정에 벼슬하기 전에 분명 유민이었다. 왕조가 바뀌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벼슬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의미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벼슬의 유무에 따라 유민의 가부를 정하는 것은 다소 협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우국구세의 정신, 옛 왕조에 대한 충정과 절개에 중심을 둔 해석이다. 경은시사의 성원인 귀장(歸莊)은 <역대유민록서(歷代遺民錄序)>에서 “도와 덕을 품고 세상에 쓰이지 않은 사람은 일민(逸民)이다. 하지만 유민은 오직 흥패의 교체기에서 그 전의 조정에 의해 남겨진 사람들이다.”⁹⁾라고 했다. 일민

-
- 5) “南國文人群起而赴賓興之會。” 杜登春 《社事始末》。 何宗美, 《明末清初文人結社研究》, 324쪽 참고.
- 6) “明之亡也, 諸生自隱退, 誓不出者多矣, 久之, 變其初之十七八。” 戴名世, 《戴名世集·溫榮家傳》, 201쪽.
- 7) 강희17년(1678)년 박학홍유과를 개설하라고 명한 후, 이듬해에 200명이 천거되었고 그 중 50명을 합격시켰다. 趙剛, 《康熙博學鴻詞科與清初政治變遷》, 古宮博物院, 1993, 91쪽.
- 8) 何冠彪, 《明末清初學術思想研究》, 學生書局, 1991, 105쪽.
- 9) “凡懷道抱德不用於世者, 皆謂之逸民; 而遺民則惟在廢興之際, 以爲此前朝之遺也。” 歸莊, 《歸莊集》3卷. 何宗美, 《明末清初文人結社研究》, 286쪽 참고.

은 도와 덕을 품고도 평생 벼슬하지 않는 것이라면, 유민은 왕조의 교체시기에 다른 조정에 남겨진 자들로서 다른 조정에서 벼슬을 하지 않는 것이다. 자의적 해석에서 출발했지만 동시에 그 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왕조의 교체기에 일민 역시 유민에 속할 수 있지만 유민을 벼슬유무 자체에 무게중심을 두기보다는 우국구세의 정신, 옛 왕조에 대한 충정과 절개를 지키며 나아가 청 정부에 투항하지 않는 사람들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실제 귀장의 삶도 그러했고 경은시사의 활동에서도 잘 보여 지는 점이다.

셋째, 유민의 태도·심리·신분 등에 중심을 둔 해석이다. 유민들의 정치적 입장도 중요하지만 유민의 가치태도·생활방식·감정상태 등 ‘유민의 태도·심리·신분’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이다.¹⁰⁾ 조원(趙園)은 벼슬 유무를 전제조건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 보완하는 차원에서 보다 유민의 심리, 역할 및 사회적 신분 등에 중심을 두고 있다.¹¹⁾ 대만중앙연구원 왕애령(王瓊玲) 역시 기본적으로 이러한 입장에서 왕조 교체 시기의 지식인이 스스로를 유민 신분으로 인정하는 것과 자각적으로 전대에 대한 ‘충성을 다하는’ 정서가 있어야 한다¹²⁾라고 하면서, 유민으로서 자발적인 신분 인정과 전 왕조에 대한 충성의 정서를 강조하였다. 유민의 신분과 정서만을 표준으로 삼는 것은 다소 모호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 행위와 활동만으로 유민의 정의를 내리는 것도 온당하지는 않다.¹³⁾

청초 유민은 명의 쇠퇴와 멸망, 만주족의 침입, 내란과 수십 년 간의 혼란 상태에서 여러 가지의 생존방식으로 삶을 살아왔다. 유민을 자의에 따라 해석하자면 ‘남겨진 자’란 뜻이다. 남겨진 자들에게는 ‘남겨진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겨진 마음’ 안에 정치적인 마음, 벼슬 안하겠다는 마음만 남아있는

10) 趙園, 《明清之際士大夫研究》, 北京大學出版社, 1999, 289쪽.

11) 이와 유사한 의견으로 방용(方勇)은 남송의 유민을 정의할 때에, 사인의 내면 깊은 곳에 강렬한 유민의식이 있는지에 따라 정해야한다고 하였다. 方勇, 《南宋遺民詩人結社研究》, 人民出版社, 2000, 8쪽.

12) 王瓊玲, <記憶與徐事: 清初劇作家之前朝意識與其易代感懷之戲劇轉化>, 《中國文哲研究輯刊》, 2004, 40쪽.

13) 이상 유민의 정의는 吳增禮, <清初江南遺民生存境況研究>, 湖南大學博士學位論文, 2010, 3-4쪽 참고.

것은 아닐 것이다. 어찌 보면 벼슬하지 않겠다는 마음 안에는 새로운 조정 대한 불만과 고국에 대한 충정의 마음이 양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초의 고압적인 통제와 억압 앞에서 신분의 불안정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고국에 대한 그리움, 화이적 관점에서 볼 때 다가오는 무너진 민족적 자존감 등은 더욱 참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유민들은 항청·칩거·은둔·유랑·승려 등 다양한 생존방식으로 살아갔던 것이다. 따라서 유민의 정의를 규정할 때는 정치적 입장에서 또는 벼슬의 유무로 한정하기 보다는 망국에 대한 그리움, 구국의 의지, 생존을 향한 심리적 요소 등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2 청초 유민결사의 투쟁과 침체

청초 약 10여 년간은 명이 망한지 오래되지 않았고 남명정권이 아직 강남에서 일정정도의 세력과 영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유민결사의 정치적 투쟁도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이다. 청초 유민결사는 순치16년을 경계로 하여 그 이전은 각 지역에서 반청복명의 투쟁이 지속되었다. 당왕(唐王)은 복주(福州)에서 노왕(魯王)은 소흥(紹興)에서 영력(永歷) 정권은 광주(廣州), 운남(雲南) 등에서 활동을 하였고, 정성공(鄭成功), 장헌충(張獻忠) 등은 장강 하류에서 항청 운동을 펼치고 있었다. 이런 기세에 따라 일부 유민결사 역시 반청복명에 가담하게 된다. 특히 정치적 성격이 강한 충성사(忠誠社), 회충사(懷忠社) 및 일부 경은시사의 구성원들이 가담하였다. 경은시사를 예로 들면, 고염무, 귀장(歸莊) 등은 곤산기의(崑山起義)에 참여한 적이 있으며 오염(吳炎)과 반정장(潘檉章)은 정치적인 '장정릉명사안(莊廷鑑明史案)'¹⁴ 사건으로 인해 살해되기도 했다. 또한 당계시사(棠溪詩社)의 조직 규약(社約)에는 "청 조정에서 벼슬한 사람은 참가할 수 없다."¹⁵라는 참가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청 정부에서 벼

14) 관련 내용은 3.2 '학술활동과 경은시사의 침체'를 참고.

슬하여 공명을 추구하는 사람과 고국에 대한 절개를 지키려는 유민들을 구별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청초의 반청투쟁은 주로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이는 강남지역 유민들의 자각적인 사명감과 위기감에서 비롯되었다. 양봉포(楊鳳苞)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명 조정이 전복되자 사인들은 초췌해지고 직위도 잃었다. 세속을 떠나 은둔하며 지내는 글을 잘 짓는 문인들이 연달아 시사를 만들어 옛 조정과 군주에 대한 마음을 술회하였다. 양자강 이남에는 유민결사가 없는 곳이 없었다.”¹⁶⁾ 그러나 순치17년 청 정부는 ‘결사금지(社禁)’를 단행한다. 당시 예과급사중(禮科給事中) 양용건(楊雍建)은 “지금 함부로 결사를 만들어 사람들을 모아서 결맹하는 곳이 곳곳마다 없는 곳이 없으며, 그 중 강남의 소주·송강과 절강의 항주·가흥·호주가 가장 심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명분으로 출발했으나 후에는 이를 통해 당을 세우려는 것이 이전 익숙해져서 풍습이 되었으니 더 이상 두고만 볼 순 없습니다. 청컨대 칙서를 내려 사인들이 이를 확실하게 실행하게 하고, 사인들을 통제하여 함부로 사단을 세우거나 사람들을 모아 결맹을 맺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경계하시기 바랍니다.”¹⁷⁾라고 상소문을 올렸다. 순치제는 양용건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인들의 풍습이 바르지 못하여 결사와 동맹을 맺어 아문을 좌지우지하고 공사를 대변하는 일을 하고 선동하여 풍조를 이루고 있으니 몹시 심한 죄악이므로, 이에 금지할 것을 엄격하게 시행하겠노라.”¹⁸⁾라는 명을 내렸다. 이에 양용건은 절강, 강소 지역을 결사금지의 중점지역으로 선포하였고, 이에 따라 강남지역 유민결사의 투

15) “凡已仕者不與。”王豫, 《江蘇詩征》43卷, 道光元年焦山海西庵詩征閣刻本, 王文榮, <明清江南文人結社研究>, 26쪽 참고.

16) “明社既屋, 士之憔悴失職, 高蹈而能文者, 相率結爲詩社, 以抒寫其舊國舊君之感, 大江以南, 無地無之.” 《秋室集》1卷 <書南山草堂遺集後>, 《叢書集成續編》, 新文豐出版公司, 1989, 157권, 664-665쪽.

17) “今之妄立社名, 糾集盟誓者, 所在多有, 而江南之蘇松, 浙江之杭嘉湖爲尤甚. 其始由於好名, 其後因之植黨, 相習成風, 漸不可長. 請敕部嚴飭學臣, 實心奉行, 約束士子, 不得妄立社名, 糾衆盟會, 其投刺往來.” 《清世祖實錄》132卷, 中華書局, 1985. 謝國禎, 《明清之際黨黨運動考》, 上海書店出版社, 2004, 252쪽.

18) “士習不端, 結社訂盟, 把持衙門, 關說公事, 相煽成風, 深爲可惡, 著嚴行禁止.” 《清世祖實錄》132卷, 中華書局, 1985. 王文榮, <明清江南文人結社研究>, 140쪽 재인용.

쟁성, 결집력은 점차 약화되어갔다. 결사금지 외에도 남명정권의 멸망, 복명투쟁의 실패, 변발령, 주소안(奏銷案), 곡묘안(哭廟案), 문자옥 등 청 정부의 고압정책으로 인해 더욱 힘을 잃어갔다.¹⁹⁾

이러한 고압정책 외에도 유민결사가 와해되거나 결집력을 잃어갔던 원인 중의 하나는 강희제의 한족에 대한 완화정책이다. 강희제는 과거제도, 팔고문을 부활하는 한편 대형의 저술 작업도 하였다. 특히 유민결사가 분화를 보이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은 강희제가 실시한 박학홍유과이다. 청초 대부분의 유민결사의 공동적인 특징은 “청조에서 벼슬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박학홍유과를 계기로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다. 강희17년(1678)년 강희제는 유민 가운데 인재를 뽑아 문운을 흥성시킨다는 방침을 다음과 같이 내린다. “자고이래로 한 나라가 흥성하려면 반드시 박학홍유과를 두어 문운을 진흥시켜야한다……학문이 뛰어나고 행실이 바르고 글을 잘 짓는 선비로서 이미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이든 아직 벼슬을 하지 않은 사람이건 간에, 도성에서는 3품 이상과 사도관, 지방 총독과 순무, 포정사, 안찰사가 각각 아는 사람을 추천하면 짐이 직접 시험을 쳐서 채용할 것이다.”²⁰⁾ 이듬해에 200명이 천거되었고 그 중 50명을 합격시켰다. 200명 가운데 절강(67명), 강소(66명) 두 성이 총 66%를 차지했으며, 50명 합격자 가운데 절강·강소·강서 지역의 사람들이 41명으로 약80%를 차지하였다. 확실하게 강남지역에 편중되어있다. 이는 강남지역에 우수한 문인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달리 보면 강남지역을 더욱 통제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²¹⁾

19) 주소안은 순치18년(1661) 조세가 거치지 않은 강남지역의 소주부·송강부(松江府)·상주(常州府)·진강부(鎮江府)와 울양(溧陽)현의 신사들이 대거 파면된 사건이다. 곡묘안 역시 순치18년 소주 오(吳)현의 현령 임계초(任繼初)와 순무(巡撫) 주국치(朱國治)가 강남지역에 세금을 많이 거두고 또 관방미를 팔아먹은 일을 고소하면서 공자 묘당에 찾아가 곡을 하면서 고발한 사건. 당시 김성탄(金聖嘆), 장자위(丁子偉), 고위업(顧偉業) 등 121명이 죽임을 당했다. 청 정부가 청초 강남지역의 신사, 지식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20) “自古一代之興，必有博學鴻儒，振興文運……凡學行兼優，文詞卓越之士，不論已仕未仕，今在京三品以上及科道官員，在外督撫布按，各舉所知，朕將親試錄用。”《清聖祖實錄》71卷，中華書局，1986，910쪽.

21) 趙剛，〈康熙博學鴻詞科與清初政治變遷〉，古宮博物院，1993，91쪽. 孟森，〈明清史講

이러한 상황이 되자, 유민들은 칩거하거나 산림 속으로 은거하면서 회맹과 관련된 일을 감히 한마디도 꺼내지도 못했다.²²⁾ 즉 산골에서 밭 갈며 살거나, 두문불출하며 저술에만 몰두하거나, 산림 속으로 은거하거나, 절로 피신하여 승려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중 특히 승려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명유민록회집(明遺民錄匯輯)》에 실린 2,000여명의 유민가운데 승려가 된 사람은 약 300명에 이르며 그 중 유명한 사람은 약 200명이나 된다.²³⁾

청초 명대 유민은 명나라의 쇠퇴와 멸망, 만주족의 통치, 청초 고압정책 등 막막한 생활 앞에서 생존을 위한 힘의 결집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런 점에 볼 때 '결사'는 일종의 생존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유민들의 반청복명의 활동은 유민들의 절조이자 생존이자 삶의 의지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반청복명의 실패, 결사에 대한 탄압과 문화적 회유정책 등으로 복명의 희망도 투쟁의 의지도 점차 희박해져갔다. 강희제 이후 유민결사는 서서히 사라지고 상대적으로 친목성이 강한 이로시사(怡老詩社) 등의 문인사단이 생겨나면서(佳日社·尙齒社·婁東十老會 등) 청초 유민결사는 서서히 소멸·변화되어갔다.

2.3 강남지역 유민결사의 특징

유민결사는 특수한 정치적, 문화적 현상으로서 대략 송원교체기에 출현하기 시작했다. 명대 유민은 송대 유민에 비해 수량도 많고 영향력도 크며 활동지역도 더 넓다. 하종미(何宗美)의 연구에 따르면, 명말청초 문인결사는 313개이며, 그 지역적 분포를 보면 남직(南直: 강소·안휘·상해 일대) 107개, 절강 97개, 광동 33개, 복건 18개, 강서 17개, 호광(湖廣: 호북·호남 일대) 1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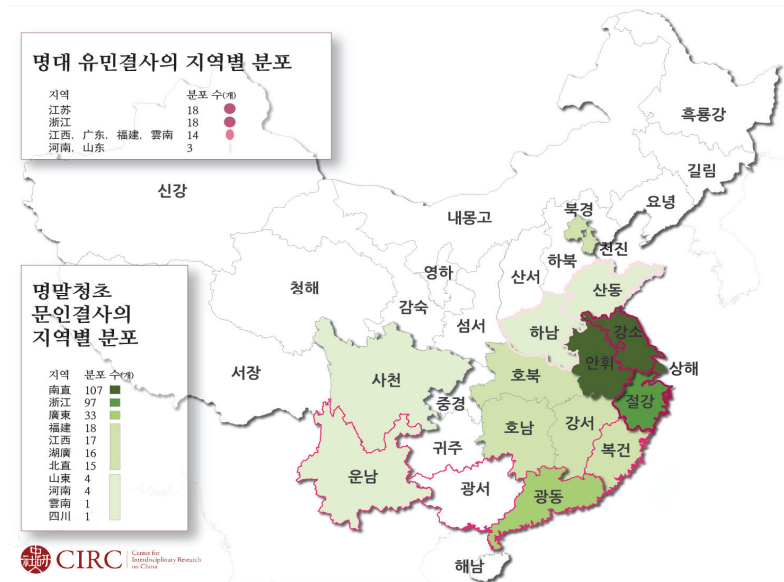
義》, 中華書局, 1981, 423-424쪽 참고.

22) “自是家家閉戶，人人屏迹，無有片言只字敢涉會盟之事。” 杜登春, 《社事始末》, 《叢書集成初編本》, 中華書局, 1991. 王文榮, <明清江南文人結社研究>, 27쪽 개인용.

23) <明遺民錄匯輯序>, 謝正光·范金民 《明遺民錄匯輯》 1쪽. 丁元公·文祖堯·文同揆·方以智·吳有涯·呂留良·王鏊遠·朱之瑜·屈大均·歸莊·顧有孝·戴笠 등 '유민승' 명단에 대해서 何宗美, 《明末清初文人結社研究》, 305쪽 참고.

북직(北直: 북경·천진 일대) 15개, 산둥·하남 각4개, 운남 1개, 사천 1개의 순이다. 이 가운데 200여개는 강남지역에 분포해있다.²⁴⁾ 약200여개 가운데 청 순치에서 강희 초까지의 문인결사는 약70여개이다. 그 중 유민결사는 약50여개이며, 강소에 18개, 절강에 18개, 강서·광둥·복건·운남에 14개, 하남·산둥에 3개가 있다. 강소, 절강 지역의 36개는 주로 소주·상주(常州)·송강(松江)·진강(鎮江)에 분포해있다.

그림1: <명대 문인결사와 유민결사 분포도>25)



출처: 何宗美, 《明末清初文人結社研究》에 근거하여 재구성

<그림1>에서와 같이 명대 문인결사와 유민결사의 분포가 모두 강남지역

24) 何宗美, 《明末清初文人結社研究》, 23-25쪽 참고.

25) 청대 초기의 강역이 아니라 현대 중국 강역으로 그린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청초의 지역이 시기적으로 다소 변화가 있어서 한 장의 지도에 담아내기가 쉽지 않았고, 현대 중국 강역과도 그다지 커다란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또 지역별 분포 수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였으므로 혼돈은 피할 수 있을 것이며, 현대 중국 강역의 지도로 작성하면 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에 집중되어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원나라 때 송대의 유민결사는 주로 남송의 고도 항주를 주축으로 하는 절강 일대가 중심이 되었고, 청대 유민결사 역시 명대의 고도 남경을 주축으로 하는 강소 일대가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청대 유민결사는 강소를 중심으로 볼 때, 남쪽으로 절강·복건·광둥 일대로 확대되고, 서쪽으로는 강서·안휘·호남 일대로, 북쪽으로는 산둥·하북으로, 서북쪽으로는 산서·섬서 등의 전국적인 분포를 형성하였다. 명대 유민결사의 지역분포는 송대 유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지만 모두 여전히 강소·절강 일대가 주축을 이루었다.²⁶⁾

유민의 수량이나 결사의 이동방향은 새 왕조의 정책과 유민들의 활동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실제로 유민결사는 미리 어떤 한 특징적인 지역을 정해서 모인 후 결성하는 방식보다는 혼란한 정국을 피해 여러 지역을 이동하다가 어떤 한 곳에서 만나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꼭 자기 고향에 있는 결사만 가입하는 것도 아니며, 한 명이 여러 결사에 가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표3> 참고) 청초 명대 유민들이 송대 유민들보다 지역적인 면에서 유동적이고 확장적인 형태를 지니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이다. 청초 유민들은 반청 활동과 그에 대한 체포를 피해 강남지역 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다녀야 했다. 그리고 청나라의 영토 확장과 변방지역의 개척과 북경을 수도로 정하고 심양을 제2수도로 하는 등 북방에서의 거점지가 원대에 비해 두드러졌다. 특히 청초는 지식인 집단에 대한 통제적 수단인 문자옥으로 인해 동북, 서북 지역을 유배지로 활용하였기도 했다.²⁷⁾ 또한 남명 정권 가운데 당왕(唐王)은 복주, 노왕(魯王)은 소흥, 영력 정권은 광주와 운남 등에 분포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민의 이동도 있었을 것이다.

다음은 청초 강남지역의 주요 유민결사에 대한 정리이다.

www.kci.go.kr

26) 梅新林, 《中國文學地理形態與演變》, 復旦大學出版社, 2006, 890-891쪽 참고.

27) 梅新林, 《中國文學地理形態與演變》, 517-519, 887-890쪽 참고.

표1: <청초 강남지역의 주요 유민결사>(28)

번호	결사명	설립시기	대표구성원	활동/ 근거지	비고(성향 등)
1	懷忠社	順治2년	朱襄孫, 嚴而杰, 方用晦	上海	정치성
2	迨社	順治3년	張佳圖	江陰	정치성
3	毛晋結社	順治4년	毛晋, 孫永祚, 楊彝, 曾同	常熟, 昆山	
4	蓮社	順治4년	陳瑚, 陸世儀, 江士韶, 聲敬	太倉, 昆山	강학성, 詩文性
5	水村讀書社	順治5년	陸世儀, 陳瑚, 江士韶, 聲敬, 王育		강학성
6	慎交社	順治6년	宋實穎, 侯汭, 侯涵, 陸圻, 顧有孝, 顧澗, 尤同, 計東	蘇州, 松江	杜登春 소주에서 滄浪合局(1649)창립→두등춘, 章在玆 소주, 송강, 태창으로 확대→내부 갈등→慎交社, 同聲社로 분리
7	同聲社	順治6년	章在玆, 陸慶臻, 王發, 王昊, 陸慶曾, 章本練, 盧元昌, 王溥, 顧鏞之	蘇州, 松江	상동
8	驚隱詩社	順治7년	葉繼武, 歸莊, 顧炎武, 戴笠, 陳濟生, 潘禔章, 朱鶴齡 등 총50명	吳江	시문, 정치, 학술
9	菴斐堂社	順治9년	王揆, 陸世儀, 陳瑚	太倉	강학, 정치성
10	侯方域宜興詩會	順治9년	侯方域, 陳貞慧, 陳維崧, 陳宗石, 任源祥	宜興	정치성
11	十郡大社	順治10년	吳偉業, 宋實穎, 彭瓏, 尤同, 徐孚遠, 顧宸, 陸圻, 侯涵, 計同	蘇州, 松江	신교사와 동성사의 내부 모순→吳偉業 소주, 송강 등 7府 문인들과 연합. 주로 신교사, 동성사 회원
12	雲門社	順治11년	秦保寅, 顧貞觀, 安瑤, 顧景文 등 총10명	無錫	정치성

13	假我堂文宴	順治11년	錢謙益, 歸莊, 朱鶴齡, 侯汭, 金俊明, 葉襄, 陳三島, 張奕	常熟, 昆山, 吳江	사회
14	原社	順治11년	杜登春, 張淵懿, 施樟, 顧開雍	松江	
15	丁酉社	順治14년	潘陸, 李楷, 孫枝蔚	吳江, 鎮江	
16	佳日社=尙齒社	順治 初	毛晋	常熟, 昆山	怡老性
17	棠溪詩社	順治 初	王光承, 金是瀛, 吳懋, 吳騏, 王溥, 王烈	松江	정치성/ 청 조정에 벼슬한 사람은 참여할 수 없음
18	顧有孝結社	清初	顧有孝, 吳旦, 沈世楸, 周安, 潘陸, 俞南史, 顧樵	昆山, 吳江	문학성, 정치성
19	千齡社	清初	丘上儀		고령자, 은거불사
20	西郊吟課(社)	清初	馮樾, 王光承, 吳騏, 張若羲		정치성
21	東臯詩社	清初	王光承, 吳騏, 金是瀛		정치성
22	小蘭亭社	清初	曹篈仙, 曹勛 등 12-16명	華亭	가족성 결사, 난정의 유사곡수
23	韓馨結社	順治~康熙初	韓馨, 顧頊, 鄭敷教, 張溥, 金俊明		顧頊結社라고도 함 禪院에서 선학공부
24	陸志熙結社	不詳	陸志熙, 歸莊, 王晨, 吳喬	長洲	
25	翁遜結社	不詳	翁遜, 戴笠, 顧有孝		西郊吟社라고도 함
26	沈自鈺結社	不詳	沈自鈺, 沈自炳	吳江	정치성/ 항청활동을 하다가 沈自炳 강물에 투신 자살, 沈自鈺 은거
27	湄浦吟社	康熙3년	陳瑚 등 약40명	太倉	詩酒唱和
28	北郭詩會	康熙3년	林古度, 杜濬, 陳維松, 龔賢, 孫默, 李遴	揚州	
29	婁東十老會	康熙10년	陳瑚, 陸世儀, 盛敬, 江士韶, 宋龍		강학성, 정치성→怡老性

			顧士璉, 王撰, 王育		
30	江干五老會	康熙12년 ~康熙17 년	杜濬, 余懷, 錢澄 之, 曾燦, 錢肅潤	常州	정치성
32	周燦結社	不詳	周燦		
32	顧夢游結社	不詳	顧夢游, 王潢, 吳時 德		은거
33	陳濟生結社	不詳	陳璧, 王子安, 史趾 祥, 侯彥德, 潘非 眉, 徐乾學		
34	西湖八子社	不詳	陸宇(火+鼎), 毛聚 奎, 董德僂, 紀五昌 등 총8명	浙東 甬上	詩酒唱和

출처: 참고문헌의 자료를 통해 재정리

<표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초 강남지역 유민결사는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정치적 색채가 강한 결사가 많았다. 앞서 말했듯이 회충사, 충성사, 경은시사가 그러하다. 특히 경은시사의 고염무, 귀장(歸莊) 등은 곤산기의(崑山起義)에 참여한 적이 있으며 ‘장정룡명사안(莊廷鑑明史案)’으로 인해 구성원인 오염, 반정장 등이 연루되어 살해되는 등 비교적 정치적 투쟁성을 보여준 결사이다.²⁹⁾ 또한 당계시사(棠溪詩社)는 청 조정에서 벼슬한 사람은 참가할 수 없다는 참가 조건을 제시할 정도로 청초에서 벼슬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결사의 입장을 보여주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투쟁의 색채는 적으면서 주로 시문을 주고받으면서 유민의 통한과 심정을 토로한 유형도 있다. 특히 진호(陳瑚) 등이 결성한 연사(蓮社)가 대표적인 유형이다. 연사는 시문을 주고받으며 그것을 모은 시문집 《완담시화(頑潭

28) 구성원은 참고문헌 속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일부 대표적인 인물을 열거하였다. 활동지/근거지는 정확한 지역을 명기하지 않았지만 모두 강남지역의 결사임에는 틀림이 없다. 비교(성향 등) 부분은 절대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보다 두드러진 성향을 기입한 것이다. 不詳은 정확한 년도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거의 순치, 강희 초에 결성된 것들이다.

29) 그러나 경은시사는 회충사, 충성사에 비해 두드러지게 정치적 활동만을 한 결사는 아니다. 시문을 주고받은 시문성 결사의 성격도 농후하다.

詩話》를 엮어내었다. 또한 강학적인 성격이 강한 유형으로 수촌독서사(水村讀書社), 연사 등이 있으며 주로 강학, 독서 및 시문화답 등의 활동을 했다.

이처럼 청초 강남지역 유민결사의 활동은 비교적 강한 지역적 성격을 지닌다. 문인결사의 활동이 빈번한 지역은 유민결사도 빈번했다. 소주, 송강은 문인결사의 전통이 깊은 곳으로 유민결사 또한 활발한 곳이었다. 또한 항청 투쟁이 격렬한 지역은 유민결사의 활동도 활발하였다. 예를 들어, 소주부, 송강부 및 상주부의 의흥(宜興), 강음(江陰) 등은 명말청초 시기 항청 투쟁이 매우 격렬한 곳이었고 이러한 지역은 유민결사의 기풍도 매우 농후했다. 특히 소주부의 오강(吳江)은 명이 망한 후 심자병(沈自炳)·심자연(沈自鋌)·오역(吳易)·오진원(吳振遠) 등 많은 사람들이 의군을 조직하여 항청 활동을 펼쳤다. 경은시사의 오종잠(吳宗潛)·오종한(吳宗漢)·오종필(吳宗泌) 세 형제도 이 항청 활동에 참가했었다.³⁰⁾

이러한 항청 활동은 청초의 정치적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청초 유민결사의 구성원들이 명말 정치적 성향이 강한 문인결사와 일부 계승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과는 연관이 있다. 청초 유민결사의 구성원을 보면, 명대 복사, 기사 혹은 동림당의 성원들이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표2: <유민결사와 명대 문인결사와의 연계>

	구성원	관련 유민결사
복사	毛晋, 孫永祚, 楊彝, 曾同	毛晋結社
	歸莊, 顧炎武, 侯方域	驚隱詩社
	王揆, 陸世儀, 陳瑚	菘斐堂社, 蓮社, 水村讀書會
	侯方域	侯方域宜興詩會, 雪苑社, 江干五老會
	金是瀛, 吳騏, 王烈	棠溪詩社
	顧有孝(복사성원 陳子龍의 문인)	驚隱詩社, 顧有孝結社

30) 이들이 항청 활동에 참가한 것은 다음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다. 오종잠은 “신유년 허국에게 몸을 던져 동생 종한, 종필과 서로 군영을 오가며 여러 차례 어려움을 넘겼다.(申酉奮身許國, 與弟宗漢, 宗泌往來兵間, 數蹈危難.)” 潘禮章, 《松陵文獻》10卷, 《北京圖書館古籍珍本叢書刊本》, 書目文獻出版社, 1996, 693쪽.

기사	王光承	東臯吟社, 西郊吟社
동림당	顧景文(동림당 顧憲成的 증손)	雲門社
	侯方, 侯涵(동림당 侯桐曾의 아들)	慎交社

출처: 참고문헌의 자료를 통해 재정리

복사, 기사와 관련된 결사만 보더라도 15개이다. 물론 한 두 명의 복사, 기사 구성원이 소속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정치적이고 조직력이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복사, 기사, 동림당의 사인들의 절개와 투쟁정신은 일부 청초 유민들이 복명항청 활동을 하고, 고국에 대한 충정과 절개를 지킬 수 있는 자원과 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청초 유민결사는 비교적 유동적이고 규범적이지 않은 점도 있다. 명대의 문인결사는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조직의 핵심인물(社長·盟主), 조직 규약(社約), 모임 장소 및 경비 등 운영체계를 갖춘 결사들이 많았다. 사장은 주로 벼슬에서 물러나 시 창작으로 명성이 있는 원로, 요직에 있는 고급관료, 학문적으로 뛰어난 문인, 사림의 영수 등이 맡았다. 사약은 결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작품 내용·장소·모임형태·회비 등에 대한 규정이 있다. 경비문제는 공경대부들이 후원해주거나 회원이 돌아가면서 준비하거나 회비를 거두기도 했고, 절과 서원의 찬조를 받거나 지방정부의 후원으로 사전(社田)을 운영하기도 했다.³¹⁾ 그러나 청초 유민결사는 상대적으로 조직, 활동 면에서 비교적 개방적이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결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표3: <유민결사 구성원의 중복 가입>

결사구성원	중복가입
경은시사	顧有孝: 驚隱詩社, 西郊吟社, 慎交社, 翁遜結社, 顧有孝結社
	戴笠: 驚隱詩社, 西郊吟社, 翁遜結社
	歸庄: 驚隱詩社, 假我堂詩會, 陸志熙結社
	潘陸: 驚隱詩社, 顧有孝結社, 丁酉社

31) 何宗美, 《明末清初文人結社研究》, 29-35쪽, 郭英德, 《中國古代文人集團與文學風貌》,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8, 142-145쪽 참고.

	周燦: 驚隱詩社, 周燦結社
	錢肅潤: 驚隱詩社, 江干五老會
	朱鶴齡: 驚隱詩社, 假我堂詩會
	陳濟生: 驚隱詩社, 陳濟生結社
	周安: 驚隱詩社, 顧有孝結社
	顧樵: 顧有孝結社
기타 결사구성원	-王光承: 求社·雲間七子社, 西郊吟社, 東臯詩社, 棠溪詩社, 棠溪詩社 -陳瑚: 蓮社, 水村讀書社, 蓁斐堂社, 婁東十老會, 湄浦吟社 -陸世儀: 蓮社, 水村讀書社, 蓁斐堂社, 婁東十老會 -吳騏: 西郊吟社, 東臯詩社, 棠溪詩社, 棠溪詩社 -徐孚遠: 求社·雲間七子社, 海外幾社 -杜濬: 重九會, 北郭詩會, 江干五老會 -江士韶: 蓮社, 水村讀書社, 婁東十老會 -盛敬: 蓮社, 水村讀書社, 婁東十老會 -金是瀛: 東臯詩社, 棠溪詩社 -侯方域: 侯方域宜興詩會, 雪園續社 -侯枋: 慎交社, 假我堂文宴, 十郡大社 -侯涵: 慎交社, 十郡大社 -尤同: 慎交社, 十郡大社 -徐乾學: 十郡大社, 陳濟生結社 -陸圻: 慎交社, 十郡大社 -金俊明: 韓馨結社, 假我堂文宴 -毛晋: 毛晋結社, 佳日社

출처: 참고문헌의 자료를 통해 재정리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고유효, 귀장, 왕광승, 육세의 등은 여러 개의 유민결사에 동시에 참여하였다. 반육은 경은시사의 구성원이자 강음의 정유사 성원이기도 하다. 진호는 연사, 수촌독서사, 미포음사, 루동십로회 등의 성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개방적이고 유연하다고 보일 수 있지만 달리 보면 집단 간의 결속력이 느슨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실상 일부 유민결사의 지속 기간은 짧았다. 예를 들어, 후방역의흥시회는 후방역이 의흥을 떠난 후 바로 해체되었다. 강간오로회 역시 5명의 유민들이 강음에서 결성하였다가 한두 명씩 강음을 떠나면서 곧바로 해체되었다. 이처럼 대다수의 유민결사는 일반 문인결사와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규범화되어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

다. 대다수의 유민들이 반청복명 활동을 위해 혹은 고압정치를 피해 여기저기 다녀야했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있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의 사회적 영향력, 삶의 생존방식 및 창작활동 등은 일반 문인결사와는 다른 개성과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정치적인 면에서 일반 문인결사보다 열정적이고 활동적이었다.

이상, 청초 유민결사가 강남지역에 분포해 있는 현상은 문학가들의 분포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청대에 강소·절강·강서·안휘·상해 4개 성시의 장강 일대의 문학가는 1,184명으로 총1,744명 가운데 67.89%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강소 지역은 소주부(178), 상주부(134), 양주부(64), 송강부(60) 등에, 절강은 항주부(173), 가흥부(93), 소흥부(58), 호주부(44) 등에, 강서는 남창부(25), 무주부(撫州府, 22), 건창부(建昌府, 21) 등에, 안휘는 안경부(安慶府, 40), 휘주부(32), 녕국부(寧國府, 15) 등에 분포해 있다. 이 중 절강, 강소 지역이 총801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³²⁾ 또한 탁이감(卓爾堪), 《명유민시(明遺民詩)》의 기록에 따르면 이 책에 실린 명대 유민시인은 500 명이고, 이 가운데 절강, 강소 지역의 유민시인은 203명으로 약40%를 차지한다.³³⁾ 이처럼 청대 문학가, 유민시인 등은 모두 남방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오월(吳越)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장강 하류 지역의 인문환경은 문인결사 외에도 유민결사, 문인출신지, 유민시인의 분포, 역대 장원배출, 서원의 분포, 출판업의 성행 등의 면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³⁴⁾

청대와 원대는 이민족의 통치 속에서 두 왕조가 수도를 모두 북경에 두었으며, 송대와 명대는 남방의 오월 지역 내에 하나는 항주에, 하나는 남경에 각각 수도를 두었다. 청초 유민집단은 정신적, 심리적으로 항주와 남경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과 귀속감이 더 컸을 것이다. 따라서 강남지역은 모종의 ‘지역적’ 성

32) 梅新林, 《中國文學地理形態與演變》, 517-519, 887-890쪽 참고. 曾大興, 《中國歷代文學家之地理分布》, 商務印書館, 2013, 339, 412쪽 참고.

33) 曾大興, 《中國歷代文學家之地理分布》, 413-470쪽 참고.

34) 梅新林, 《中國文學地理形態與演變》, 146-147, 162, 469, 499쪽 참고.

격을 띠기도 하지만 문인들의 '정신적' 도시로서의 상징성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즉 중국 고대 인문학의 흥성지로서 지식인의 출현, 지식담론과 유파, 지식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경은시사의 활동과 특징

3.1 경은시사의 구성과 성격

경은시사는 엽계무(葉繼武)와 오종잠, 오종한 형제가 주축이 되어 순치5년(1648)년에 설립하였다.³⁵⁾ 경은시사의 형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명 조정이 전복되자 사인들은 초취해지고 직위도 잃었다. 세속을 떠나 은둔하며 지내는 글을 잘 짓는 문인들이 연달아 시사를 만들어 옛 조정과 군주에 대한 마음을 술회하였다. 양자강 이남에는 유민결사가 없는 곳이 없었다. 그 가운데 가장 성행한 곳은 동월에서는 용상이고 삼오에서는 송릉이다.……'경은시사'는 오사가운데 가장 으뜸이었다.³⁶⁾

국초에 오읍의 은자가운데 중 문학에 능한 자들이 함께 경은시사를 만들자 사방에서 동지들이 모여 들었다. ……그래서 난이 평정된 지 4, 5년이 되었다. 그 시작점을 추적해 보면 대략 순치 경인으로 보인다. 이들은 고국의 유민으로서 벼슬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함께 산림에서 은둔하면서 한가로이 술을 마

35) 순치7년(1650)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강희 2년(1663)에 발생한 '장정릉명사안' 사건으로 구성원 가운데 오염, 반정장이 살해 된 후 집회를 한 기록이 문헌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강희 3년 이후로 소멸되었다고 한다.

36) “明社既屋，士之憔悴失職，高蹈而能文者，相率結爲詩社，以抒寫其舊國舊君之感，大江以南，無地無之。其最盛者，東越則甬上，三吳則松陵。……而驚隱詩社又爲吳中之冠。”《秋室集》1卷〈書南山草堂遺集後〉，《叢書集成續編》，新文豐出版公司，1989，157권，664-665쪽.

시며 시문을 지었다. 짚신을 신고 삿갓을 쓰고 늘 오호삼묘 사이를 오가도 법을 집행하는 관리들이 검문하지 않았다.³⁷⁾

오종잠은 오홍의 심조효, 범풍인, 가화의 금와, 주립 및 같은 읍의 엽계무, 오가 등과 '경은시사'를 결성하였다. 은거하며 글을 잘 짓는 사람들이 다들 모였다."³⁸⁾ 엽계무는 오홍 심조효, 범풍인, 동읍의 오종잠, 반정장 등과 함께 '도사'를 받기하여 '세한교'라고 했다.³⁹⁾

경은시사의 설립시기, 주요 설립인, 장소, 성격, 특징이 소개되어 있다. 요약하자면 경은시사는 순치 5년 엽계무, 오종잠 등이 주축이 되어 문학적 능력이 뛰어나며 벼슬하지 않고 산림에서 은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구성된 강남 오강(현재 소주의 오강구) 지역에서 가장 으뜸이 가는 유민결사이며, 다른 말로 '도사(逃社, 또는 逃之盟', '寒盟'이라고도 함), '세한교'라고도 한다. '逃'란 은둔 생활을 하며 벼슬에 단념하고 난세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경은시사의 구성원은 총50명이며 모두 유민들로 구성되었다.⁴⁰⁾ 학자(고염

- 37) "國初, 吳邑之高蹈而能文者, 相率爲'驚隱詩社', 四方同志咸集……於時定亂已四五年, 迹其始起蓋在順治庚寅, 諸君以故國遺民絕意仕進, 相與遁迹林泉, 優游文酒, 芒鞋箬笠, 時往來於五湖三泖之間, 而執法之吏不相誰何." 乾隆《震澤縣志》38卷, 《中國地方志集·江蘇府縣志輯》23冊, 340쪽. 五湖는 洞庭湖·鄱陽湖·太湖·巢湖·洪澤湖, 三泖는 泖湖(현재 상해 松江현 서쪽)를 말한다.
- 38) "吳宗潛與吳興沈祖孝, 范風仁, 嘉禾金甌, 朱臨, 同邑葉繼武, 吳珂等結'驚隱詩社', 士之高蹈而能文者胥集焉." 潘禮章等, 《松陵文獻》10卷, <人物志·隱逸·吳宗潛>, 《續修四庫全書》, 541冊, 487쪽.
- 39) "葉繼武與吳興沈祖孝, 范風仁, 同邑吳宗潛, 潘禮章等舉'逃社', 爲歲寒交." 凌淦, 《松陵文錄》17卷. 周於飛, <驚隱詩社研究>, 21쪽 재인용.
- 40) 戴笠(耘野)·顧樵·顧有孝·李受恒·鈕榮·鈕明儒·潘禮章·錢重·沈嘉楠·沈永馨·王錫蘭·吳珂·吳在瑜·吳宗潛·吳宗漢·吳宗泌·吳宗沛·吳榮·吳炎·吳南杓·葉繼武·葉敷夏·葉世侗·周安·周燦·周爾興·周撫辰·朱鶴齡·朱明德·陳濟生·程棟·施諱·王祜·歸莊·顧炎武·錢肅潤·陳忱·范風仁·沈祖孝·金甌·金始垣·顏祁·顏俊彥·鍾俞·鍾崧立·朱臨·戴笠(曼公)·金成·金廷璋·錢重·沈泌. 경은시사의 명단을 기록한 문헌은 《震澤縣志》38卷(<雜錄·二(舊事·二)>), 《中國地方志輯成》<江蘇府縣志輯>23冊, 340쪽. 楊鳳苞, 《秋室集》1卷<書男山草堂集後>, 《續修四庫全書》1476冊, 10-11쪽. 陳去病, <驚隱詩社中人姓氏錄>(吳炎, 《吳赤溟先生文集》附錄), 國學保存會, 《國學叢書》제2집, 4-5쪽. 謝國楨, 《明末清草的學風》, 上海書店出版社, 2006년, 189쪽. 周於飛, <驚隱詩社研究>, 2012, 20-25쪽.

무·주학령·왕석천·오염·반정장·대립 등), 시인(귀장·오종잠·고유효·진제생·심조효·주안 등), 소설가(진침), 서예·화가(귀장·고초·주찬·범풍인), 승려(귀장·고유효·대립[운야]) 등 사상과 학술, 문학과 예술 방면의 유명한 사람들이 주요 활동인물이다. 구성원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오강(吳江, 28명), 장주(長洲, 4명), 곤산(崑山, 2명), 무석(無錫, 1인), 호남(湖南, 2인), 가흥(7명), 항주(1명), 불명(不明, 4명)이다.⁴¹⁾ 주로 강소, 절강 두 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사 발상지인 오강 출신이 28명으로 시사 총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구성원 간의 관계를 보면, 부자 관계(엽계무·엽부하), 형제(조카) 관계, 동향관계(오강 28명), 사제관계(9명)로 구성되었다.⁴²⁾ 동향관계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친인척 관계가 많다. 또한 가문으로 볼 때, 吳(9명), 周·沈·金(각4명), 葉·朱·顧(각3명), 鈕·顏(각2명)씨는 강남지역의 명문 집안에 속하며,⁴³⁾ 오씨(오종잠·오종한·오종필 형제)집안 인물과 엽씨 집안 인물인 엽계무가 주요 창립인물들이다.

경은시사는 매년 5일 굴원에게 제사를 지내고 9일 도연명에게, 추석에는 임균하, 정소남에게 제사를 지낸다. 다 모인 후에 함께 시를 지었다.⁴⁴⁾ 정기적인 집회 시기는 주로 매년의 단오, 중앙절이다. 집회는 굴원, 도연명, 임포, 정사초 4인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경은시사가 본받으며 추구해야할 이정표로서의

41) 吳江(28명): 戴笠(耘野)·顧樵·顧有孝·李受恒·鈕燾·鈕明儒·潘禮章·錢重·沈嘉楠·沈永馨·王錫闈·吳珂·吳在瑜·吳宗潛·吳宗漢·吳宗泌·吳宗沛·吳宗·吳炎·吳南杓·葉繼武·葉敷夏·葉世侗·周安·周燦·周爾興·周撫辰·朱鶴齡·朱明德. 長洲(4명): 陳濟生·程棟·施誼·王昉. 昆山(2명): 歸莊·顧炎武. 無錫(1명): 錢肅澗. 湖州(3명): 陳忱·范風仁·沈祖孝. 嘉興(7명): 金甌·金始垣·顏祁·顏俊彥·鍾俞·鍾崧立·朱臨. 杭州(1명): 戴笠(曼公). 불명(4명): 金成·金廷璋·錢重·沈泌.

42) 7명은 吳宗潛·吳宗漢·吳宗泌·吳宗沛·吳宗·吳炎·吳南杓이다. 이 중 吳宗는 6인의 조카이다. 사제 관계로는 오종잠·오종필과 엽부하(葉敷夏), 오종잠과 김시항(金始恒)이 있다.

43) “當明代之隆, 松陵城中, 以周沈趙葉爲五世家.” 陳去病, 《陳去病詩文集》6권(하편) <雜著·五石指>,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9, 605쪽.

44) “驚隱詩社, 歲五祀屈原, 九祀陶淵明, 除夕祀林君夏, 鄭所南.”(潘禮章, 《松陵文獻》10卷, 《北京圖書館古籍珍本叢書刊本》, 書日文獻出版社, 1996). “歲於五月五祀三閭大夫, 九月九祀陶征士, 同社衆至, 咸紀以詩.”(《秋室集》1卷 <書南山草堂遺集後>). 관련 내용은 周於飛, <驚隱詩社研究>, 11-12쪽 참고.

인물들이다. 집회 장소는 엽계무의 고평장(古風莊), 세한재(歲寒齋)에서 가장 많이 모였고 다른 구성원의 거처에서도 모임을 가졌다.⁴⁵⁾

명나라가 망한 후 남방에서는 잇달아 후속 정권이 세워졌다. 그중 영력(永歷) 정권은 청나라 순치 18년(1661)까지 지속되었다. 이 기간 중 반청복명의 투쟁이 일어났고 유민결사 역시 이와 호응하며 등장하였다. 경은시사는 집단적으로 뚜렷한 반청복명의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개별 구성원들은 반청의 태도를 표출했다. 고염무와 귀장·오종잠·오종필 등은 경은시사 설립 전부터 반청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앞에서 이미 말했듯이 고염무와 귀장은 곤산 기의에 참여하였고, 오종잠·오종필·오종한 역시 허국(許國)의 항청 활동에 참여했었다. 또한 개명을 하거나 작품에 청나라 연호를 쓰지 않거나, 과거응시 포기, 효릉(孝陵) 참배, 강희제의 박학홍유과 추천거부 등 자신들만의 행동으로 정치적 입장을 표출해왔다. 이들이 개명한 이유는 청나라의 추적과 체포를 피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 외에도 고국 명나라에 대한 충정을 간직하기 위한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이 중에 고염무는 장산용(蔣山佣)이란 이름을 사용했다. ‘장산’은 현재 남경에 있는 종산(鐘山, 紫金山)으로 고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용’은 종이란 뜻으로 장산용은 명나라의 관리, 종이란 의미이다.⁴⁶⁾ 특히 고염무는 북경 등 타 지역을 오갈 때마다 여러 차례 명 효릉을 참배하였다. 둘째, 연호는 한 정권을 대표하며 연호의 흥망은 한 정권의 흥망을 나타낸다. 청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은시사의 일부 구성원들은 청나라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이전 왕조의 연호를 사용하거나 간지기년(干支紀年) 등의 표기법을 사용했다. 귀장은 남명 연호를 사용하였고 판정장, 주찬(周燦), 왕석천(王錫闡) 등은 간지기년 표기법을 사용하였

45) 반정장의 구계초당(圭溪草堂), 주찬의 남원(南園), 심영형(沈永馨)의 통휘루(通暉樓), 주이흥(周爾興)의 봉래각(蓬萊閣), 심가남(沈嘉楠)의 동원(東園), 진계생(陳濟生)의 원휘당(遠輝堂), 왕석천(王錫闡)의 공형재(困亨齋), 진숙운(錢肅潤)의 십봉초당(十峰草堂), 고유효(顧有孝)의 북곽초당(北郭草堂) 등이 있다.

46) 이 밖에도 오종잠(吳宗潛)의 본명은 계(系)이고 자는 만륜(萬輪)이다. 명나라가 멸망 후 종잠(宗潛)으로 개명했고 자를 동리(東籬)로 고쳤다. 오두미에 절개를 굽히지 않았던 도언명을 흠모하면서 청조에서 벼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다.⁴⁷⁾ 셋째, 박학홍유과에 응하지 않았다. 강희 17년(1678) 강희제는 유민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렸다. “학문이 뛰어나고 행실이 바르고 글을 잘 짓는 선비로서 벼슬을 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도성에서는 3품 이상과 사도관, 지방 총독과 순무, 포정사, 안찰사가 각각 아는 사람을 추천하면 짐이 직접 시험을 쳐서 채용할 것이다.”⁴⁸⁾ 당시 유민들은 잇달아 천거에 응하였다.⁴⁹⁾ 하지만 경은시사는 당시 해산한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났고 또 이미 적잖은 구성원들이 세상을 떠난 상태여서 고염무·전숙윤(錢肅潤)·주학령(朱鶴齡)·고유호(顧有孝) 등이 천거의 명단에 올랐지만 모두 거절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경은시사는 정치적인 성향을 띤 결사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는 경은시사가 정치성 결사라고 단언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구성원들이 분명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지만 전반적인 구성원들은 실제 문학 활동을 위주로 하였고 정치활동은 일부 구성원들이 집중적으로 하였다. 문헌기록에서도 경은시사의 구성원들은 ‘문학에 뛰어나며 은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듯이 시문창작, 학술활동 등을 더 많이 하였다.⁵⁰⁾ 따라서 경은시사는 단순히 문학성 결사만도 아니며 그렇다고 정치적인 색채만 드러낸 결사도 아니다. 그들의 학술 활동과 정치 활동은 종종 문학 활동과 함께 교차하였다. 좀 더 나아가 말하자면, 경은시사는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는 유로들의 아회(雅會)도 아니고 또 시문만을 주고받으며 창작에만 몰두하는 시인들의 시회(詩會)도 아니며, 과거를 준비하는 강학성 모임은 더더욱 아니며, 정치적 활동을 강하게 띠는 당사(黨社)로서의 결사도 아니다. 경은시사는 청초의 특수한 역사적 환경에서 크게 반청투쟁과 문헌저술과 시문창작을 동시에 활동하였다.

위의 인용문에서 경은시사를 ‘오중 지역에서 으뜸’이라고 한 이유는 시사 발상지인 오강에 인재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구성간의 동향 관계, 친족 관계가 시사 내부관계를 구성하는 안정적인 기초로 작용하여 성원간의 긴밀한

47) 江慶柏, <明清時期年號紀年法的規避>, 《文史知識》, 2003, 第7期, 83쪽.

48) 주20) 참고.

49) “南國文人群起而赴賓興之會.” 杜登春, 《社事始末》. 周於飛, <驚隱詩社研究>, 16쪽 참고.

50) 그러므로 <표1>에서 경은시사를 시문, 정치, 학술적인 성격을 띤다고 한 것이다.

유대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참여 인원수는 현재까지 밝혀진 청초 유민 결사가운데 가장 많고, 집회 역시 비교적 정규적이었고, 또 학술·정치·시문활동 중 어느 한 곳에 치우침이 없는 균형성, 사회적 영향력(고염무, 귀장 등)을 가진 인물, 학술활동과 역사의식(오염, 반정장 《명사기(明史記)》), 청초 유민 가운데 가장 긴 활동기간 등의 여러 요소가 다른 청초 유민 결사에 비해 우수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3.2. 학술활동과 경은시사의 침체

경은시사의 학술활동은 문학 활동만큼 많지는 않으며 관련 기록도 상대적으로 적다. 경은시사의 일부 구성원들은 사학·경학·문학·예술·천문 등에 조예가 깊었다. 그들의 학술활동을 통해 경은시사의 역사적, 정치적 성향이 잘 드러나며, 심지어 경은시사가 소멸하는 결정적인 사건을 낳기도 했다. 《진택현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 이후 역사사건에 연루되어 이 시사에 범법자가 나와 마침내 시사의 집회가 중단되었다.”⁵¹⁾ 여기에서 ‘역사사건’이란 강희 2년(1663)에 발생한 장정룡명사안(莊廷鑑明史案)을 말한다. 경은시사의 구성원 오염, 반정장은 이 사건에 연루되어 항주에서 세상을 떠났다. 경은시사의 구성원인 대립(戴笠, 耘野)이 반정장을 위해 쓴 <반력전전(潘力田傳)>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반정장은…… 여러 역사서 가운데 사마천의 책이 가장 조리가 있다고 여겼다. 후인들이 대부분 그 뜻을 잃자 반정장은 이를 모방하여 《명사기》를 쓰고자 했고, 친구 오염의 견해도 대략 이와 같아서 함께 쓰기로 했다. 반정장은 각각 본기와 지를 쓰고, 오염은 각각 세가와 열전을 썼다. 연표와 역법은 왕석천이 맡았고 유구지 내가(대립) 맡았다. 사가에서 실록을 얻기가 가장 어려워서 반정장은 재산을 털어 책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곤산의 고염무, 강음의 이손지, 장주의 진

51) “其後史案株連，同社有罹法者，社集遂廢。”《震澤縣志》38卷，《中國地方志集·江蘇府縣志輯》第23冊，340쪽.

제생은 전고에 뛰어났으며, 집에 장서가 많아서 가져와 도움을 주었다. 반정장은 고증에 능했고 오염은 서사에 능하여 상호 토론을 하였다.……수년간을 집필한 끝에 이미 6.7할을 완성했다. 그런데 남십의 장정룡의 역사사건이 일어났다. 반정장과 오염이 교열자의 명단에 올라있다는 이유로 모두 난을 만나게 되었다. 장정룡의 책은 대신 주국정의 《명사사개》를 초본으로 하여 명사들과 함께 완성했다. 책이 완성된 이후 두 사람은 그 책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단지 유명하다는 이유로 연루되어 마침내 참변을 당했다.⁵²⁾

대립도 《명사기》 편찬자 중 한 사람이다. 《명사기》 편찬은 경은시사의 중요한 학술 활동 중의 하나이다. 장정룡 사건이 터진 후 《명사기》 편찬 작업도 부득이 중단되었고 이미 완성된 부분도 세상에 전해지지 못했다. 이 사건으로 장정룡의 《명사집략(明史輯略)》에 올라온 18명이 모두 사형되었고 총 70여명이 사살되었다.⁵³⁾ 이 사건 이후로 경은시사가 집회를 했다는 기록이 문헌에 보이지 않는다. 모임이 중단된 것이다.

장정룡명사안은 사실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다. 청 정부는 강남 인사들의 세력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순치 말부터 ‘주소안’, ‘곡묘안’, ‘사단결성금지’ 등 일련의 사건들을 펼쳐왔다. 이 중 사단결성 금지에 대해 살펴보면, 순치 9년(1652) 예부에서 상주하여 8개 조항이 각 학교에 전달되었다. 그중 제8항에 “생원들은 당을 지어 사람을 모으거나 사단을 결성할 수 없다.” “지은 글은 함부로 간행할 수 없다.”⁵⁴⁾ 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순치 17년(1660) 예과급사중

52) “潘樸章……謂諸史惟馬遷最有條理，後人多失其意，欲仿之作《明史記》，而友人吳炎所見略同，遂與同事。樸章分撰本紀及諸志，炎分撰世家列傳，其年表歷法則屬諸王錫闡，流寇志則笠任之。私家最難得者實錄，樸章鬻產購得之，而昆山顧炎武，江陰李遜之，長洲陳濟生皆熟於典故，家多藏書，并出以相佐。樸章長於考核，炎長於敘事，相互討論……撰述數年，其書既成十之六七，而南潯莊氏史獄起，參閱有樸章及炎名，俱及於難。莊氏書以故閣臣朱國禎《史概》爲粉本，自與茗士共足成之。刻成，兩人未嘗寓目，徒以名重爲所摭引，遂罹慘禍。”周於飛，〈驚隱詩社研究〉，17쪽。楊緒啟，〈論吳炎·潘樸章與《明史記》的纂修〉，《史學史研究》，2012，第2期 참고。

53) “列名於書者十八人皆論死”，“殺七十餘人”顧炎武，〈顧亭林詩文集·亭林文集〉5卷，〈書吳潘二子事〉，中華書局，1983，115쪽. 이 사건으로 경은시사는 큰 타격을 받았다. 오염과 반정장이 연루된 것 외에도 오종삼도 영향을 받았다. 장정룡은 오종한과 고염무에게도 편찬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지만 두 사람이 거절하여 명단에 오르지 않아 다행히도 난을 면하게 되었다. 경은시사는 이 사건 이후 시사의 집회를 중단하게 되었다.

54) “生員不得糾黨多人，立盟結社”，“所作文字，不許妄行刊刻”道光《欽定國子監志》1卷，〈聖諭

양용건은 <嚴禁社盟疏>를 상주하여 강남의 소주, 송강, 절강의 항주, 가흥, 호주지역 일대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통제하였다. 이로써 사단 활동이 가장 빈번했던 절강, 강소 지역의 문인결사 활동이 절정에서 점점 하향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게다가 오종한, 엽세동(葉世侗), 오채(吳棗), 오염, 반정장, 금와(金甌) 등 일부 구성원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고 일부 사람들은 타 지역이나 해외로 떠나갔다.⁵⁵⁾

그 후로 경은시사는 더욱 외부와 단절하고 세상사를 논하지 않으며 지냈다. 경은시사의 창립자 엽세무는 오염, 반정장이 변을 당한 후 “생각이 날 때마다 가슴을 치고 통곡을 했다. 두문불출하고 외부인을 만나지 않았다. 스스로를 게으른 사람이라 부르면서 복숭아, 국화를 심고 글을 쓰며 스스로 즐겼다.”라고 했으며, 뉴개(鈕槩)는 “시냇가에 누대를 짓고 주변엔 대나무를 심고 그 아래에는 국화를 심었다. 술을 마시고 시를 지으며 세상과 단절했다.”라고 말하였고, 종흠립(鐘欽立)은 “가난을 달가워하며 절개를 지켰고 일체 세상일을 논하지 않으며 시문을 지으며 스스로 즐겼다.”⁵⁶⁾라고 하였다.

경은시사의 구성원들은 원래부터 ‘문학에 능하며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산림에 은거하거나 칩거하여 시를 짓고 농가의 일을 즐기며 살았다. 그리고 당시 유민가운데 출가하여 승려가 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대립(戴野) 역시 수봉산(秀峰山)에 들어가 승려가 되어 선종의 교리를 배우기도 했고, 또 다른 대립(曼公)은 일본 나가사키로 건너가 승려가 되었다. 고유효 역시 승려들과 잦은 교류하다가 결국 불가에 귀의하였고, 귀장 역시 후에 절로 들어가 승려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귀장은 <송공재선사지여소서(送節在禪師至余姚序)>에서 “20여 년 동안, 천하의 특출한 인재와 절개 있고 강대한 사람들이 불문에 귀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또한 집에서 삭발하고 승복

天章》, 北京古籍出版社, 2000, 3쪽.

55) 고염무는 북경으로, 대립(曼公)은 일본으로 각각 떠났으며, 일부 구성원들은 계속해서 은둔생활을 했다.

56) “每爲撫膺流涕，於是杜門謝客，自號爲懶道人，栽桃種菊，著書自娛。”“築樓溪濱，繞以修竹，而種菊其下，賦詩飲酒，絕意人世。”“甘貧守志，絕口不談世事，以詩文自娛。”周於飛，〈驚隱詩社研究〉，18쪽.

을 입는 이도 있었다. 어찌 진정 이교를 좋아해서인가 부득이해서이다.”⁵⁷⁾라고 하였다. 결사금지, 장정룡사건, 청 정부의 고압정책, 동료들의 죽음 등으로 인해 원래 은거를 추구하던 사람들은 더더욱 위와 같은 생존의 방식을 택했을 것이다.

4. 경은시사의 시가창작

경은시사 구성원의 시가 창작은 모두 유민 시인들의 창작이다.⁵⁸⁾ 동일한 결사의 구성원일지라도 개인의 창작 주제와 풍격은 각기 다르다. 그러나 경은시사의 시 창작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점은 주로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우국충정, 은거생활 속에서 절개를 지켜나가는 의지 등을 반영한 주제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는 경은시사에서 공식적으로 추송하는 굴원, 도연명, 정사초와 관련한 시에서 잘 나타난다.

경은시사의 정규적인 집회는 5월 5일 삼려대부 굴원에게 제사를 지내고, 9월 9일에는 도연명에게 제사를 지내고 추석에는 정사초에게 제사를 올렸다. 제사를 지낸 후 다함께 시를 지어 기록하였다. 이는 경은시사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굴원의 애국정신과 오두미(五斗米)로 허리를 굽히지 않은 도연명의 절개와 민족의 자존과 역사의식을 뚜렷한 정사초의 정신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57) “二十餘年來，天下奇偉磊落之才，節義感慨之士，往往托於空門，亦有居家髡緇者，豈真樂從異教哉，不得已也！”歸莊，《歸莊集》3卷，上海古籍出版社，2010，240쪽.

58) 경은시사 구성원의 시가작품은 주로 개인시집과 다른 사람의 선본에 수록되어 있다. 구성원이 편집한 시가선집은 《驚隱編》，《歲寒集》 등이 있으나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4.1 은거와 절개: 도연명

경은시사는 도연명을 추송하였고 추모 제사를 지낼 때 국화주를 사용하였다. 국화에는 외롭고 차가운(寒姿)느낌이 있어서 경은시사의 시인들은 경은시사를 ‘한맹’이라고 명명하였다. 오종잠은 이름을 ‘종잠’, 자를 ‘동리(東籬)’라고 하였고, 동생 오종한과 오채의 호를 각각 ‘남촌’, ‘북창’으로 짓기도 했다. 귀장의 시문은 국화를 주제로 한 작품(咏菊)이 많다. “특히 절개를 지키고 은둔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편히 지내노라.”⁵⁹⁾ “국화를 감상하자니 도연명처럼 되기를 바라노라.” “그윽한 향기 다하자 가을하늘 저물어가니, 곧 된서리 붉은 잎 위에 내려앉겠네.”⁶⁰⁾ 귀장은 국화를 인격화하여 자신이 추구하고자하는 이미지로 재탄생시키고 있다. 또한 예술 풍격상 한적하고 청원(淸遠)한 풍격을 추구하기도 했다. “흰 머리에 누더기 모자를 꼭 내려쓰고 낚시를 하며 도연명의 「한거(閑居)」를 회상하노라.”⁶¹⁾ “깨끗한 물이 호수에 가득하니 한가로이 노를 짓노라, 도시의 시끄러움 농가에 이르지 않네.”⁶²⁾ 모두 도성과 벼슬의 시끄러움으로부터 벗어나 전원농가의 한적함을 추구하는 도연명의 ‘閑’의 지취를 드러내고 있다.

다음은 심조효(沈祖孝)의 <구일동동리등왕로노대(九日同東籬登王老露臺)>를 보자.

망리의 두 봉우리에 석양빛 걸려있고 거울처럼 맑은 호수에 하늘이 보이네.
풍류는 응당 사람 보다 늦게 늙어가고 타향의 경색을 대하노니 문득 스스로 가련
해지는구나. 좋은날 누대에 오르니 일단 그린대로 좋건만 고인은 술이 없어 처연
하겠구나! 흰 머리에 헤진 모자 꼭 늘어뜨리니 도연명의 <한거>가 떠오르는구나.⁶³⁾

59) “尤與幽人節士爲宜” 《歸莊集》6卷 <尋菊記>. 이후 시의 원문만 제시한 것은 周於飛, <驚隱詩社研究>, “驚隱詩社成員作品集略考” 145-240쪽 참고.

60) “賞玩盡希陶靖節”(<飲翁氏菊花下>), “幽芳縱後秋天老, 未許繁霜著葉紅”(<殘菊>). 《歸莊集》3卷.

61) “憶得<閑居>陶令篇白頭披帽垂垂立, 憶得<閑居>陶令篇”(<九日同東籬登王老露臺>).

62) “新水滿湖閑縱棹, 市喧應不到農家”(<秋日村居詩>).

심조효는 이 시에서 도연명의 <구일한거(九日閑居)>를 언급한다. 심조효는 도연명을 흠모하여 동리라고 호를 지은 오종잠과 함께 중앙절에 누대에 올랐다. 좋은 경물을 대하자니 슬이 없던 것이다. 이 때 도연명의 <구일한거>(서) “나는 한가로이 살고 있고, 중구라는 이름을 좋아한다. 가을 국화가 정원에 가득하나, 막걸리를 구하여 마실 방법이 없다. 쓸쓸히 국화를 감상하면서, 느낀 생각을 말에 기탁한다.”⁶⁴⁾는 내용과 같이, 심조효는 중앙절(九日)에 산에 오르자 막걸리를 구하여 마실 방법이 없게 되자 도연명의 시를 떠올리며 도연명과 자신의 심정을 동질화시키고 있다. 두 시 사이에 ‘중앙절’ ‘막걸리’ ‘동리’ ‘한거’가 심조효, 오종잠과 도연명을 하나로 이어 주는 시어로 작용하였다.⁶⁵⁾

경은시사 구성원들의 작품 가운데 ‘국화’와 ‘도연명’과 관련된 시 작품은 적지 않으며, 개별 시인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도연명이 가장 많다.⁶⁶⁾ 경은시사의 시인들은 국화 외에도 매(梅)·란(蘭)·연(蓮)·죽(竹)·계(桂)·송(松) 등의 식물에 자신의 심정을 가탁하여 표현한 시들이 많다.⁶⁷⁾ 은거 생활을 하며 고결한 절개를 지키고자했던 경은시사의 주요 목적과도 부합한다. 뉴개(鈕槩)는

63) “望里雙峰夕照懸，一泓如鏡見湖天。風流老去應人後，雲物他鄉轉自憐。佳日有臺聊復爾，古人無酒亦淒然！白頭破帽垂垂立，憶得<閑居>陶令篇。”

64) “余閑居，愛重九之名。秋菊盈園，而持醪靡由，空服九華，寄懷於言。”

65) 이 밖에도 경은시사의 시 작품에는 도연명의 제재에서 많이 다른 전원, 산천의 제재가 역시 많다. 顔俊彥, <村居雜興>·范風仁, <秋日村居詩>·陳攄, <春日田居>·顧樵, <竹橋池館>·懷徐介白>·鈕明倫, <題畫竹詩>·沈祖孝, <九日同東籬登王老露臺> 등이 그러하다.

66) 葉계무, <九日, 歲寒齋同逃社諸子, 祀陶元亮, 杜子美兩先生>·沈祖孝, <九日同東籬登王老露臺>·沈祖孝, <擬九日閑居>·吳宗泌, <將移居題壁>·顧有孝, <和陶寄毛子晉>·周燦, <歸田園居>·鈕槩, <上巳日鍾菊>·沈祖孝, <擬九日閑居>·吳珂, <題潛確子採菊圖>·菊影>·吳宗泌, <將移居題壁> 등. 周於飛, <驚隱詩社研究>, “驚隱詩社成員作品集略考” 145-240쪽.

67) 경은시사 구성원들이 梅·蘭·蓮·竹·桂·菊·松 등을 주제로 한 작품은 대략 다음과 같다. 梅: 陳濟生, <蕪城梅花嶺下拜史相國墓, 作開律一首>·吳榮, <畫梅歌和吳匡廬>·吳宗漢, <聞笛, 分得“梅”字>·咏梅花>. 菊: 鈕槩, <上巳日種菊>·吳珂, <題潛確子採菊圖>·菊影>. 蓮: 戴笠(扈野), <隴庵道兄營蓮花蕩先塋, 賦贈>·范風仁, <隴庵道兄營蓮花蕩先塋, 賦贈>·鈕槩, <春分日種蓮>. 竹: 范風仁, <竹橋池館>·金甌, <題畫竹>. 桂: 陳濟生, <中秋後五日, 招同人集遠耀堂桂花下分韻>. 蘭: 周燦, <題鄭所南墨蘭卷> 등 있다. 周於飛, <驚隱詩社研究>, “驚隱詩社成員作品集略考”, 145-240쪽 참고.

연꽃을 “복숭아꽃과 오얏꽃의 요염함을 따르지 않고 차라리 눈과 서리 맞는 것을 좋아한다.”⁶⁸⁾라고, 모리화를 “홀로 맑고 차가운 향기를 품으며 스스로만 알 뿐이다.”⁶⁹⁾라고, 대나무를 “색은 여러 가지 요염한 것을 다투지 않고 절개는 외로운 정절을 짊어진다.”⁷⁰⁾라고 각각 표현함으로써 연꽃, 모리화, 대나무와 같은 맑은 정신과 곧은 절개를 지키는 것을 유민으로서의 절개를 지키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다. 또한 주찬(周燦)의 붓끝에서 매화는 “절로 담백한 꾸밈으로 뺏속까지 깨끗하다”라로, 난은 “품격은 귀한 고결한 선비요, 향기는 차분하게 오래간다.”라고, 모란은 “활짝 피지만 국색을 자랑하지 않고 도리어 은일을 좇아 찬 서리를 이겨낸다.”⁷¹⁾라고 각각 표현되었다. 매화와 난의 고결하고도 정절을 지키는 품성만을 강조할 뿐 그 외 외부의 형상에 대해서는 그리지 않는다. 사물의 외형을 통해 사물의 내면적 함의, 정신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실 매화·난초·연꽃·대나무·계수나무·국화 등은 역대 문인들의 작품 속에서 고결·충정·정절의 품성으로 표현되었다. 경은시사 구성원들의 시문 속에서도 절개와 고결을 지키는 상징이자 자신의 화신이자 벗으로 상징하였다. 물론 시인들이 매화와 국화를 심고 소나무, 연꽃을 심으면서 시를 쓰고 찬송하는 것은 개인의 취미와 생활방식이기도하며 역대로 많은 시인들도 그러했다. 하지만 경은시사가 공식적으로 추송하는 인물이자 정신지주로 내세운 도연명에 대한 남다른 사랑은 일반 시인의 취지와는 다른 배경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모방, 추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은시사 구성원들의 인생의 이상과 도덕적 지조로 승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품성에 자신들의 마음을 의탁함으로써 세속에 물들지 않고 충정과 고결한 절개를 지키면서 청나라에 벼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고 다짐하는 것이다. 도연명에 대한 시와 그의 인격을 사모하는 유민결사는 경은시사뿐만이 아니라 진호(陳瑚)가 창립한 연사(蓮社)의 시 작품 모음집 《완담시화》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따라서 도

68) “不隨桃李艷，寧愛雪霜欺。”

69) “獨抱寒香只自知。”

70) “色非爭衆艷，節肯負孤貞。”

71) “自是淡妝清到骨”·“品因高士貴，馥爲靜時長”·“不逐繁華矜國色，却隨隱逸傲寒霜”

연명은 유민시인들에게 있어 생명과도 같은 존재이자 유민으로서의 자존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4.2 우국과 충정: 굴원과 정사초

도연명처럼 굴원과 <초사>는 경은시사에게 특수한 함의를 담고 있다. 유민들은 굴원을 통해 자신들의 애국정서를 기탁하고 망국의 비분함을 표현하고 있다. 경은시사는 10여 년 동안 줄곧 굴원에 대한 추모제를 드리며 그의 사상과 인격 및 예술정신을 추송해왔다. 주학령은 <이소>를 좋아하여 “때때로 이를 통해 슬픔과 근심을 드러내었다.”⁷²⁾라고 하면서, 국가와 자신과의 관계가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 굴원과 초나라와 같다고 느낀 것이다. 또 귀장은 《귀장집》에서 향초·미인·꽃 등을 노래한 작품이 무려 90여수나 된다. 매화·국화·해바라기·모란·해당화·월계수·모란·도화·낙화 등 풀과 꽃에 대해 읊고 있다. 물론 귀장이 화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벽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귀장의 붓끝에서 나온 각종 꽃들은 대부분 순수한 자연의 물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시인의 정감을 기탁하여 시대적 내함을 풀어낸다. 낙화에 대한 슬픔을 표현할 때는 자신의 처지를 의탁하여 표현하였다. “나는 살아가면서 때를 잘못 만나 여러 차례 변고를 만났다. 객은 형 땅[굴원]에 있지 않는데 항상 꽃과 열매가 들을 가득 채우는 생각을 한다. 몸은 강남에 있지만 여전히 큰 나무에 쓸쓸한 부는 바람을 느낀다. 바람과 나무는 통렬히 아파하고 꽃도 몹시 슬퍼한다.”⁷³⁾ 귀장은 꽃을 노래하고, 꽃을 안타까워하고, 꽃을 애도하면서 꽃을 통해 자신의 심정을 기탁하고 있다. 이는 굴원이 꽃과 풀, 향초 등으로 국가, 군주, 자신 등의 심정을 기탁하고 있는 점과 유사하다.

다음은 나라를 잃은 아픔과 고국에 대한 충정을 그린 주찬 <동호음(東湖

72) “時藉以發悲憫.”

73) “我生不辰，遭值多故，客非菑土，常動華實蔽野之思。身在江南，仍有大樹飄零之感。以至風木痛絕，華萼悲深。”

吟) > 을 보자.

동호에 뿔감 파는 나무꾼, 성을 얼마나 입었던가. 갑자기 고국의 운명의 소식을 접하고 통곡하며 몸을 호숫가에 던진다. 남아가 목숨을 바치는 것 또한 후세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리. 나무꾼은 싸늘하게 죽었지만 어찌하여 성씨조차 알 수 없는가. 혹자는 은자라고하면서 촌부는 꼭 그렇게 하진 못할 거라고 한다. 하지만 인의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으니 필부의 감격이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평생 공맹의 책을 읽지 않아도 하늘을 위해 사내대장부로 남으리라. 오호라! 상강의 호숫가에 굴원을 아는가. 동호의 나무꾼은 과연 누구이던가. 나무꾼은 한 조각 마음만을 남길 뿐인데 그 마음은 동호의 물에 가득하구나. 동호여, 동호여! 온통 나무꾼의 피로 가득하구나. 호수는 마를 수 있어도 나무꾼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으리.⁷⁴⁾

한 나무꾼이 명나라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통스러운 나머지 물에 뛰어들어 자살을 했다. 누군가는 그가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은 은둔자라고 말한다. 하지만 인의의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 공맹의 책을 읽지 않아도 의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그 명성이 영원히 전해질 수 있다고 한다. 나무꾼을 크게는 유민, 작게는 시인 자신에 비유하면서 은자이든 학식이 있든 촌부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유민이라면 충정한 마음으로 고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만이 후세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를 상강과 동호, 굴원과 나무꾼을 대비시킴으로써 굴원이 강물에 뛰어 든 것과 나무꾼이 호수에 몸을 던진 것은 모두 나라를 위해 절개를 지킨 것이라고 동질화하면서 칭송한다. 시인은 시로 역사를 보존하고 긴 읊조림으로 고통을 풀어낸다. 촌부의 죽음이 가져온 역사적 비가를 통해 유민들의 충심과 충절을 표현했다.

죽음으로 충절을 지키는 것은 군주에게 충정을 바치고 나라에 보답하는 방식이다. 경은시사의 시인들은 역사상의 은사(隱士)를 추억, 추모함으로써 자

74) “東湖賣柴一樵父，沐浴聖恩能幾許。忽聞皇家革大命，慟哭舉身赴水跡。男兒肯捐生，亦圖身後名。樵夫死得最凜冽，何故姓氏無分明。或云當是隱君子，野人未必能如此。仁義之心皆有之，匹夫感激何不爲。生平不讀孔孟書，偏爲天壤留須眉。噫嘻！湘江濱，識屈子；東湖樵，竟誰是。樵夫只留一片心，此心盡在東湖水。東湖東湖，直是樵夫滿腔血。湖可竭，樵夫之心不可滅。” 周燦，〈澤畔吟〉，〈叢書集成續編〉123卷，上海書店出版社，474쪽.

신들의 충절을 다짐하고자 했다. 그 가운데 정사초(鄭思肖)의 처지와 삶은 경은시사의 구성원들과 가장 유사하다.

정사초의 이름은 사초(思肖)이고 호는 소남(所南)이다. 송나라 말기 문인이자 화가이며 송대 유민이다. 그는 남송이 멸망한 후 이름을 思肖로 개명하였다. 사초는 '思趙'의 뜻으로 조(趙)씨 왕조 송나라를 그리워한다는 의미이다. 所南은 '복을 향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원(元)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는 특히 묵란(墨蘭)을 잘 그렸다. 그가 그린 난의 특징은 꽃과 가지가 흩어져 있고 뿌리와 흙을 잘 그리지 않는다. 나라가 망하여 뿌리를 내릴 수 없음을 의미한다. 시인이자 화가인 주찬은 <제정소남묵란권(題鄭所南墨蘭卷)>에서 정사초가 난을 사랑하고 도연명이 국화를 사랑하고 주돈이(周敦頤)가 연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였다.

난의 청초함은 세상 무엇과도 비할 수 없고, 못 꽃들이 오염 떠는 것과는 다르네. 그 모습은 홀로 은자와 친하니 세인들은 공연히 잘못 사랑하고 있는 거네. 오호라 난은 참군자요 정공의 참된 지기로드. 공은 말년에 피바람이 불어쳐도 갖옷 걸치고 못가에서 낚시질하며 그 뜻 굽히지 않았도다. 그 고결한 자태는 아름다운 난 꽃의 향기와 같고 유유하게 홀로 소상가의 뜻을 품고 있네. 나의 紫硯으로 불어와 나의 노송목을 갈게 하네. 묵화는 편편히 백색 비단 위로 떨어지고 시원한 바람 담백한 그림자 함께 드러나네. 도잠의 국화는 울타리 아래에서 고개 숙이고 있고 주무숙의 연꽃은 바람 앞에서 춤을 추고 있네. 저 난은 공경할 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니 어찌 너희 같은 것들과 한 무리가 되겠는가. 우아하고 초연하게 홀로 진흙에서 나오는 것이 안타깝구나. 꽃과 뿌리가 황토에 드리우게 하지 않으리. 붓끝으로 은자의 뜻을 빼어나게 그려나가고 사악하고 더러운 때 벗겨 버리니 마음 유독 괴롭구나. 춘추의 필삭이 역사에 드리우듯 이 글의 포폄 또한 우뚝하리라. 난 꽃 으로 자처하며 멀리 뜻을 의탁해본다. 출처와 대의가 어찌 이리 엄한가. 오호라! 정 공자는 참된 군자요. 난은 나의 참된 지기로드. 75)

75) “蘭之清芬世莫比，不似凡花媚人喜。風標獨與高士親，世人謬愛徒然耳。嗚呼蘭兮眞君子，嗚呼鄭公眞知己。公之季，腥風吹；披裘釣澤，厥志不墮。孤芳矯矯氣若蘭，悠然獨抱瀟湘意。拂我紫硯田，揮我老松墨。墨花片片落素練，疎風淡影相聯翮。陶潛菊子，籬下俯；茂叔蓮，風前舞。吾蘭可敬不可狎，詎若若等同儔伍。更憐豐韻獨出塵，不令芳根麗黃土。筆端磊落寫出高士意，嫉邪去穢心獨苦。春秋筆削垂編年，此卷褒誅亦卓然。芳蘭自命托意遠，出處大義何其嚴。嗚呼！鄭公子，眞君子，嗚呼蘭兮眞知己。”周燦，〈澤畔吟〉。

난초, 국화, 연꽃이 공통적으로 상징하는 의미는 고결한 성정과 절개이다. 그리고 굴원이 품은 '소상가의 마음(瀟湘意)'은 우국충정을 의미한다. 난은 정사초의 지기일 뿐만 아니라 시인 자신의 지기이기도하다. 정사초의 난은 뿌리도 흙도 없고 초연하여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은 곧 은자가 절개를 지키며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과도 같다. 정사초는 또 국화에 대해 "차라리 향기 나는 가지를 붙들고 죽을지언정 어찌 북풍 속에서 먼지를 날리겠는가."⁷⁶⁾라고 묘사했다.

나아가 '춘추필삭수편년'은 정사초의 유저 《심사(心史)》를 가리킨다.⁷⁷⁾ 《심사》는 명나라 말기에 발견된 것으로 사학과 문학에서 모두 가치를 인정받아 당시 많은 애국지사들의 관심과 추앙을 받았다. 《심사》에 실린 시문은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주제로 한 것들이 많다.

만세의 커다란 충정은 충효를 벗어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충정은 수백수천만의 충정이요, 한 사람의 효는 수백수천만의 효이다. 사는 것은 좋아할 바가 아니요 죽음은 두려워할 바 아니다. 살아서 그 도를 얻지 못하여 죽으면 영화로운 것이다. ……천하의 충신의사는 혈맹을 맺어 함께 세력을 키우고 하늘 높이 맹렬함을 회복하길 바란다.⁷⁸⁾

이 시는 정사초의 기개와 충정이 잘 반영되어 있으며, 당시 청초 유민들의 민족주의와 충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잃어버린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민족적 절개와 자신의 지조를 지키려는 유민들에게 커다란 격려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경은시사는 추석 정규적인 집회 때 정사초를 추모했던 것이다.

76) "寧可抱香枝頭死，何曾吹落北風中。" 鄭思肖，〈寒菊〉。

77) 이 책에는 《咸淳集》·《大義集》·《中興集》·《久久書》·《雜文》·《大義略叙》 등의 작품이 실려 있다. 정사초는 송나라 멸망 후 이 책을 밀봉하여 소주 승천사(承天寺)의 한 우물 안에 감추어 놓았다고 한다. 이후 356년이 지나 명나라 말기 승정연간에 우물의 물이 다 말라 우연히 발견되었다고 한다.

78) "萬世大忠，不逾忠孝。一人忠，數百千萬人忠；一人孝，數百千萬人孝。生非所愛，死非所畏，生不得其道，死則爲榮。……天下忠臣義士，耳茲血盟，愿相從而興火德復炎中天乎!" 《鄭思肖集·久久書》，何宗美，《明末清初文人結社研究》，289쪽 재인용.

4.3 경은시사의 은거

경은시사의 구성원들은 명나라가 망한 후 자발적으로 생원의 신분을 포기하고 은거생활을 택했다. 청초 청 정부의 압박과 통제가 더해져 정치적, 경제적, 심리적인 면에서 힘든 길을 걸어왔다. 그들의 시 작품에는 순전히 여가의 의미에서 산과 계곡에서 한가로이 노닐며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는 내용이나 농촌에서 한가롭게 자족하며 지내는 내용은 그리 많지 않다. 이를 테면, 명대 문인결사 가운데 아흥(雅興)을 즐기는 시사가 많았던 것에 비해, 청초에는 시사라 할지라도 유민이라는 신분적 한계로 인해 여가, 친목 차원의 아흥성 시사는 거의 없었다. 은거하여 농촌에 거한다 해도 그것은 천성이 농촌의 목가적인 생활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피난의 도피처로서 작용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자연과 농촌의 주제라 할지라도 대체로 근심과 고통, 슬픔과 비애, 늙어가는 데 대한 비탄 등 비애의 정서가 많았다.

유민들의 은거생활은 일반인의 은거생활과는 조금 다르다. 이들이 관료사회로 들어서지 않은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인격과 절개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청빈하고 묵묵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게 초야에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전란에다 사회 환경의 불안이 더해져 한 곳에서 장기간 은거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전란으로부터 피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처를 옮겨 다니며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고 그 생활은 가난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뉴개의 <추회(秋懷)>에서는 처자식에게 가을 옷을 입힐 수조차 없는 가난한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다. “서풍이 갑자기 차가어져 숨이 든 옷을 입어야하건만, 처자식은 홑옷을 입고 내 앞에서 떠는구나. 내게 물어도 대답할 길이 없어 멍하니 텅 빈 벽만을 바라본다.” “남쪽 이웃의 가난이 가슴에 사무치고, 북쪽 마을 부유함이 하늘을 덮고 있구나. 만물이 지음이 분디 가지런하지 않으니 어찌 또 우매함과 현명함에 달려있겠는가!”⁷⁹⁾

79) “西風頓涼冷，衣被應裝綿。妻兒負單夾，唏噓當我前。問我我不應，四顧空茫然。”·“南隣貧徹骨，北里富薰天。造物本不齊，豈復關愚賢!”

라고 표현하면서 힘든 생활을 보여준다.

빈곤하다고 다 농촌으로 돌아가 은거하는 것도 아니지만 또 은거한다고 해서 완전히 세속과 단절되는 것도 아니다. 세사상을 완전히 잇는 것이란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내면에 강한 정신력이 있어야 외부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 시인이 자신의 절개를 지켜나갈 수 있었던 초심은 절개와 명성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며 어찌 보면 청 정권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이다. 따라서 산림에서의 은일한 삶이 자발적으로 농촌을 택하여 살아가려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삶이 꼭 자적할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때의 감정은 슬픔과 비애로 표현되기도 한다. 게다가 망국의 고통을 경험하고 또 청초의 압박정치 때문에 불가피하게 난을 피하여 농촌으로 들어가 은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이 결코 도연명처럼 그렇게 자적하고 초연하며 한적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경은시사의 적잖은 시인들은 모두 반청복명의 실패 후 은거를 일종의 '환난의 피신처'로 삼았었다. 따라서 경은시사의 시인들의 작품에 드러나고 있는 도연명식의 한적함(閑趣)은 도연명의 그것과는 다를 것이다. 안준언(顔俊彦)은 <촌거잡흥(村居雜興)>에서 “병들어 열흘간을 몸져 누웠더니 얼굴은 피죄죄하고, 매화꽃 다 떨어지니 살구꽃이 피었네. 장식한 기둥엔 텅 빈 둥지가 무수하고 추적추적 봄비 내려 제비는 돌아오지 않네.”⁸⁰⁾ 한가하고 한적한 느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 전체에 흐르는 느낌은 오히려 처량, 적막, 상실, 슬픔 등의 색채가 더 강하다.

물론 한 인물을 추송한다고 해서 그와 완전하게 동일화될 수는 없다. 그러면 애당초 추송, 모방이란 말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복명의 꿈이 요원해질수록 유민의 정신은 더 피폐해졌을 것이고, 그 때 전원생활은 그들에게 조용한 낙원이자 정신적 고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혼란한 세상을 피하여 자유로운 시간과 공간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은시사의 사회적, 정치적 환경 속에서 바라볼 때, 그들이 진정 은거하는 이유는 도연명처럼 천성이 세속과 맞지 않고 농촌과 자연과 하나 되는 성정을 가져서라기보다는 현실

80) “病臥經旬滿面埃，梅花落盡杏花開；畫梁無數空巢在，社雨蕭蕭燕不來。”

적 '피난'으로서의 일시적인 도피적 은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으며

명나라의 쇠퇴와 멸망, 만주족의 통치, 청초 주소안·문자옥 등 정치 문화적 환경 속에서 명대 유민은 다양한 생존의 길을 걸어왔다. 본고는 청초 유민결사, 강남지역의 유민결사, 결사의 작품 등을 통해 경은시사가 청초 유민결사에서 지니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원나라 때 송대의 유민결사는 주로 남송의 고도 항주를 주축으로 하는 절강 일대가 중심이 되었고, 청대 유민결사 역시 명대의 고도 남경을 주축으로 하는 강소 일대가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청대 유민결사는 강소를 중심으로 볼 때, 남쪽으로 절강·북건·광둥 일대로 확대되고, 서쪽으로는 강서·안휘·호남 일대로, 북쪽으로는 산둥·하북으로, 서북쪽으로는 산서·섬서 등의 전국적인 분포를 형성하였다. 명대 유민결사의 지역분포는 송대 유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지만 모두 여전히 강소·절강 일대가 주축을 이루었다.

또한 청초 명대 유민결사의 지역적 특징은 명말 문인결사의 상황에 영향을 받아 문인결사활동이 빈번한 지역은 유민결사도 빈번했다. 소주, 송강 등의 강남지역은 문인결사의 전통이 깊은 곳이며 유민결사 또한 활발한 곳이었다. 또한 청초 소주부, 송강부 및 상주부의 의흥, 강음 등은 명말청초 시기 항청 투쟁이 격렬한 곳이었으며 유민결사의 활동도 활발했다. 지역적 분포로 볼 때, 송원시기 문인결사의 지역적 분포와 마찬가지로 명대에도 경제적·문화적·사상 문화적으로 발달된 강남지역의 강소·절강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강남지역의 인문환경은 문인결사 외에도 유민결사, 유민시인, 문인들의 출신지역, 역대 장원배출, 서원의 분포, 출판업의 성행 등의 면에서도 유사한 경

향을 보인다. 따라서 명·청시기 강남 지역은 중국 고대 인문학의 흥성지로서 지식인의 출현, 지식담론과 유파, 지식생산과 유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청초 유민들의 생존방식은 명 조정의 회복을 위해 투쟁하거나, 도피하여 산림 속에 은거하거나, 왕래를 끊고 저술에 심혈을 기울이거나, 승이나 도사가 되거나, 벼슬을 거부하며 시정(市井)에서 섞여 사는 등 다양했다. 경은시사는 문학적 능력이 뛰어나면서 벼슬하지 않고 산림에서 은둔하며 사는 살아가는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구성원들은 반청투쟁과 문헌저술 및 시문창작 등의 활동을 하였다. 경은시사 50명 가운데 오강 출신이 28명으로 시사 총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구성원 간의 관계를 보면, 대부분 부자 관계·형제(조카) 관계·동향관계·사제관계로 이루어졌고, 가문으로 볼 때, 吳·周·金·葉·朱·顧·顏씨 등 강남지역의 명문 집안이 많았다.

경은시사의 시 창작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점은 대체로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우국충정, 은거생활 속에서 절개를 지켜나가는 의지 등을 반영한 주제들이다. 그리고 경은시사가 공식적으로 추송하는 굴원, 도연명, 정사초와 관련한 시에서 잘 나타나 있었다. 경은시사의 시인들은 이들의 품성과 절개에다 자신들의 마음을 의탁함으로써 스스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충정과 고결한 절개를 지키면서 청나라에 벼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하지만 복명의 꿈도 요원해지고 유민의 정신도 피폐해져감에 따라 그들은 은둔과 전원생활을 택했다. 사실 경은시사의 사회적, 정치적 환경 속에서 바라볼 때, 그들이 진정 은거하는 이유는 도연명처럼 천성이 세속과 맞지 않고 농촌과 자연과 하나 되는 성정을 가져서라기보다는 현실적 '피난'으로서의 일시적인 도피적 은거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향후 보완되어야하거나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몇 가지 점에 대해 적으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청초 유민결사는 원대 송 유민에 비해 수량도 많고 분포 지역도 광범위하다. 특히 청초 유민결사의 구성원 가운데는 청초 사상영역과 문학영역에서 유명한 문인들이 많다. 고염무, 귀장, 황종희, 육세의(陸世儀), 여류량(呂留

良), 만사동(萬斯同), 주학령, 모선서(毛先舒), 굴대균(屈大均) 등은 유민결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었거나 참여해왔다. 이는 청초 명대 유민결사가 청초 문학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초 유민결사가 청대문학에 끼친 영향을 탐구하고 나아가 문인사단, 문학유파, 문학사조 등과의 연관하여 비교 연구하는 작업도 의미 있을 것이다.

둘째, 유가경전을 강론하는 것은 유민결사 활동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특히 강학성 결사인 연사, 수춘독서사는 실제 유가 경전과 시문창작 등을 병행하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조대가 바뀌는 경우는 대부분 한 민족내부의 분쟁의 결과이므로 '화이지변'이 존재하지 않지만, 송말원초 명말청초는 몽고족과 만주족이 중원의 주인이 되면서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청대 유민 결사의 유교적 관점의 화이론 등과 연관하여 연구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청초 유민 가운데는 승려가 된 경우가 많다. 《명유민록회집》에 수록된 2,000여명의 유민가운데 승려가 된 사람은 약300명에 달하며, 그 가운데 유명한 사람은 약200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유민승(遺民僧)'이 청초 불교사, 사상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이다.

< 參考文獻 >

- 何宗美, 《明代文人結社研究與文學流派研究》, 北京: 人民出版社, 2015.
 曾大興, 《中國歷代文學家之地理分布》, 北京: 商務印書館, 2013.
 曾大興, 《文學地理學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2012.
 何宗美, 《明末清初文人結社研究續編》, 北京: 中華書局, 2006.
 梅新林, 《中國文學地理形態與演變》,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6.
 何宗美, 《明末清初文人結社研究》,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2004.
 郭英德, 《中國古代文人集團與文學風貌》,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8.
 譚正璧, 《中國文學家大辭典》,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1998.

- 歐陽光, 《宋元詩社研究叢考》, 廣東: 廣東高等教育出版社, 1996.
- 郭紹虞, 《照隅室古典文學論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3.
- 周於飛, <驚隱詩社研究>, 浙江大學博士學位論文, 2012.
- 李偉煌, <中國文學地理學論著的數理統計與分析>, 廣州大學碩士學位論文, 2012.
- 吳增禮, <清初江南遺民生存境況研究>, 湖南大學博士學位論文, 2010.
- 王文榮, <明清江南文人結社研究>, 蘇州大學博士學位論文, 2009.
- 周於飛, <驚隱詩社與山陰秘密反清團體交遊考>, 《紹興文理學院學報》, 2016, 第6期.
- 張濤, <文學社群與明清地域文學流派>, 《江蘇師範大學學報》, 2014, 第1期.
- 王文榮, <一部鮮爲人知的明遺民詩社總集: 《頑潭詩話》>, 《浙江大學學報》, 2013, 第6期.
- 李玉栓, <中國古代的社·結社與文人結社>, 《社會科學》, 2012, 第3期.
- 楊緒敏, <論吳炎、潘耒章與《明史記》的纂修>, 《史學史研究》, 2012, 第2期.
- 周於飛, <驚隱詩社成員認定過程考論>, 《廈門教育學院學報》, 2011, 第3期.
- 王文榮, <清初江南遺民結社研究: 以蘇松常鎮四府爲考察中心>, 《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 2011, 第4期.
- 朱則杰, <驚隱詩社成員叢考>, 《中國文學研究》, 2011, 第3期.
- 周雪根, <清初吳地驚隱詩社新考>, 《國學論衡》, 2011, 第2期.
- 吳增禮, <清初江南遺民生存境況研究>, 《甘肅社會科學》, 2010, 第6期.
- 周於飛, <驚隱詩社成員著作考>, 《衡陽師範學院學報》, 2010, 第5期.
- 常新, <清初關中遺民生存境域與文學生態: 以游幕·隱居·結社爲例>, 《甘肅社會科學》, 2010, 第5期.
- 孔定芳, <明遺民的群體身分認同旅群體聚合>, 《中南民族大學學報》, 2010, 第1期.
- 江慶柏, <明清時期年号紀年法的規避>, 《文史知識》, 2003, 第7期.
- 何宗美, <樂志林泉, 跌蕩文酒: 驚隱詩社及其文學創作淺析>, 《南開學報》, 2003, 第4期.
- 曾大興, <中國歷代文學家的地理分布: 兼談文學的地域性>, 《學術月刊》, 2003, 第9期.
- 張兵, <清初遺民詩創作的社會文化環境與遺民詩群的地域分布>, 《西北師大學報》, 1999, 第4期.

< Abstract >

The Association of Drifters from the Ming Dynasty in the Southern Areas of the Yangtze River in the Early Period of the Qing Dynasty: Focusing on the Gyeongseong Sisa or Gyeongseong Literary Club

Park, Young-soon

Most studies of drifters from the Ming Dynasty have been conducted in terms of political and historical aspects where fewer studies have examined their creative works in literary and cultural contexts. It makes sense to look at drifters from political and social perspectives. However, this approach may not provide full explanations of the ways they embraced the new world and the variety of feelings they went through. Despite their political activities and political struggles,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cultural activities and psychological changes of drifters. And examination of their cultural activities or work of writing can be one of the best ways to look into the deeper natures of drifters as they have special, social implications. Then, this raises some questions: activities and life they pursued through their association and literary works, and how to properly understand such works and implications in them. This is why the understanding of the drifters' association requires the analysis of their outside activities as well as their literary works.

In this regard, based on existing research findings,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developments of the association of drifters, who sought to maintain their identities as writers and the displaced. It discusses two categories such as the features of drifters' association during the Qing Dynasty and in the Southern Areas of the Yangtze River, and activities and literary work of the Gyeongseong Sisa. Understanding of the former is necessary to study the Gyeongseong Sisa, and the Southern Areas of the Yangtze River are places with

special significance to drifters such as struggles, survival and escape. Thus, the Southern Areas of the Yangtze River in the early period of the Qing Dynasty, drifters' association and the Gyeongun Sisa are three key pillars with historical and humanistic implications.

Key Words: Drifters, Association, Southern Areas, Gyeongun Sisa, Tao Yuanming, Qu Yuan, Zheng Sixiao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7. 04. 30.	2017. 05. 28.	2017. 06. 01.	2017. 06. 12.	2017. 06. 30.